



2022

**부산예술인
파견지원사업
결과자료집**

CONTENTS

01.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소개	2
02.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 소개	3
03. 한눈에 보는 2022 사업 로드맵	4
04. 참여기업 및 예술인 명단	6
05. 협업활동 노트	7
창작지원	8
창작기술지원	142
06. 역량강화 프로그램	156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57
저작권교육	157
역량강화 워크숍	158
07. 참여예술인 포트폴리오	161
08. 예술인복지란?	197
09. 사업 통계 및 만족도조사	201

01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소개

부산예술인 복지지원센터

Busan Artists
Welfare Support
Center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지역예술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열악한 창작여건과 생활 실태를 개선하고자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6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 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부산지역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 정책으로 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 창작 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직업역량강화/지역상생 확대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 반딧불이(반집활용) 사업
- 부산예술인 아카이빙 사업 <부산의 삶, 예술로 기억하다>



예술인 사회안전망 지원

-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 부산예술인 <행복플랫폼> 운영
- 예술인권리보장안내(교육) 및 캠페인



예술인 창작환경 지원/불공정관행 개선

- 예술인 퍼실리테이터 운영
- 예술인 컨설팅 매칭 <아이컨택> 운영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 예술인복지금고 기반 연구조사



02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 소개

사업소개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직접 기업·기관에 파견하여 예술적 지원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인에게는 안정된 예술창작 환경 조성과 직업역량강화를, 기업·기관에게는 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조직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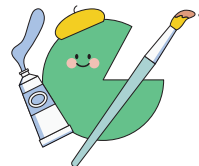
2022년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 개요

구분		창작지원	창작기술지원
참여자	예술인	32명	3명
	기업기관	30곳	2곳
사업기간		2022.03~12	
사업비		시비	
		금389,500,000원	
주최 · 주관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BUSAN ARTISTS' WELFARE SUPPORT CENTER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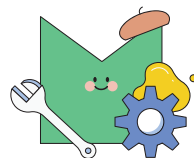
① 개인형 “굿모닝 예술인” - 창작지원

개인형 “굿모닝 예술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 및 기업·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예술인이 자신의 분야와 희망하는 협업유형에 맞춰 기업과 현장미팅 후 1:1로 매칭됩니다. 이후 기업과 예술인의 협업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합니다. 예술인의 활동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공간 및 기타 재료비는 기업·기관에서 제공합니다.



② 개인형 “굿모닝 예술인” - 창작기술지원

창작기술지원은 부산지역 공연예술 전문 인력의 직무개발을 위해 2021년에 시작된 새로운 유형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의 공연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부산 소재의 공연장에서 무대장치와 음향 등 공연장 팀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현장경험을 쌓게 합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공연장은 해운대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으로 총 2곳이며, 3명의 예술인이 함께했습니다.



협업활동 유형

조직문화개선

사내조직의 문화변화를 목적으로 소통방식, 협업방식, 업무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술적 지원



복리후생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예술적 개입으로 직원의 삶의 질 향상



교육훈련

직원의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예술적 지원



제품기획

제품 및 서비스 기획, 개발 또는 생산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한 예술적 지원



홍보마케팅

제품 브랜딩,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예술적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구현에 필요한 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적 지원



참여자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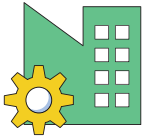
① 참여예술인

참여기업·기관의 이슈를 진단하고 예술적 개입방향 설계한 후 프로젝트를 기업과 함께 기획합니다. 그 후 기업·기관 또는 타 장르의 예술인과 협업 활동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활동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월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며, 사업이 끝날 무렵에는 결과보고서와 워크숍에 협업활동 결과물을 제출한 후 사례를 공유합니다.



② 참여기업·기관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예술인의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여합니다. 또한 예술 협업 활동에 필요한 제반 환경(공간, 재료비 등) 및 OT 제공하고 예술인 월별 활동보고서 검토합니다. 사업이 끝날 무렵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를 공유합니다.



03 한눈에 보는 2022 사업 로드맵



04 참여기업 및 예술인 명단

분류	기업/기관명		참여예술인	PAGE
창작지원	1	(주)바림	김소영	8
	2	씨네소파 영화배급협동조합	강정환	12
	3	(주)이중섭문화마을	김도연	16
	4	(주)착한세상	김선화	20
	5	올드뉴스	김원	24
	6	모노마인드	김혜윤	28
	7	(주)라텍	김정아	32
	8	아트하랑	김지우	36
	9	아트모아갤러리	김효은	40
	10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박소산	44
	11	(주)대한소방공사	박홍석	48
	12	신진문화예술행동 흥	배은채	52
	13, 14	다함께돌봄센터 하랑플러스	서혜인, 백은석	56, 60
	15	모이다아트 협동조합	심종후	64
	16, 17	(재)영화의전당	유혜린, 안희정	68, 72
	18	(주)예술은공유다	엄지영	76
	19	오픈아츠스페이스머지	이선옥	80
	20	희락원	이정윤	84
	21	루미너시티	이정은	88
	22	예원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재희	92
	23	(주)여반브릿지	전미희	96
	24	꿈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소이	100
	25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정승화	104
	26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정혜원	108
	27	문화예술조은학교	정호윤	112
	28	문화공동체지구인	주혜자	118
	29	(사)부산어린이어깨동무	차성욱	122
	30	부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최용혁	128
	31	모퉁이극장	하주은	132
	32	(주)호밀밭	홍석진	138
창작 기술 지원	33	해운대문화회관	우혜린	142
	34, 35	부산문화회관	양유진, 허훈	146, 152

05

협업활동 노트

(주)바림

1

- 참여예술인 김소영
- 담당자 오경민
- 협업활동 유형 제품기획
- 소재지 해운대구



기업/기관

-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주)바림은 문화예술콘텐츠 청년 창업 기업으로써, 공연, 행사, 음반제작, 영상, 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참여 예술인과는 자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자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이번 협업 활동을 통해 예술인이 가진 전문성과 예술성을 더하여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Q3. 예술인의 역할로 기업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예술인이 가진 경험들을 활용하여 창작물들을 만들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었으며, 협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가진 아이디어를 훨씬 더 다양하고 가치있게 향상시켜 더 나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술인의 경우 자신의 창작활동을 위해 예술 활동 외의 다양한 부업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자신의 창작활동과 병행이 가능하고 내가 가진 예술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과 좋은 방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예술적 개입을 통해 일상에서도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도자 전공자로서 저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잘 매칭이 되어 프로젝트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플랜테리어 식집사 등 식물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면서 심미성이 중요한 화분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진 과정에 테라 베이스라는 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이 참 흥미로웠는데 이 베이스의 같은 경우 화분 같은 토기 표면에 식물을 고정시킨 후 화분 내부에 물이 점점 스며나오면서 그 식물이 살아가고 형태를 유지하는 형식의 베이스인데 적절히 물을 스미게 하기 위한 실험이 필요한 화분이어서 흥미로웠던 작업이었습니다.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6개월의 긴 여정은 왠지 저에게는 짧게 느껴집니다. 적재적소에 매칭이 되어 저에게도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았고, 저의 역량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었기에 협력 기간 동안 즐겁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Q4. 기존의 예술활동과 기업과 협업활동이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존의 예술 활동은 나의 생각만을 풀어내는 것이라면 협업 활동은 나의 생각과 기업의 생각을 풀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에게만 맞춰진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협업노트

1. 심미성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화분 디자인

외출이 힘든 팬데믹 시대를 거치며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와 인테리어 연출은 물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식물 특유의 매력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듯 정성 들여 식물을 키운다는 뜻의 '반려 식물', 애정을 갖고 식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식집사' 등 식물 관련 신조어도 생겨날 정도로 식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 식물을 담는 화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심성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화분 디자인을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2. 월간 화분 개발 및 제작

월간 유희신처럼 월간 화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디자인을 한 다음 식물 그리고 디자인에 맞는 흙과 유약을 선정하여 물레 작업을 통해 다양한 사이즈의 화분을 제작하였고 초벌, 재벌 과정을 통하여 화분을 완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화분에 직접 식물을 식재해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또한 월마다 평가를 통해 디자인 수정 및 다음 월에 진행할 것에 대한 회의 과정을 가지며 제품에 예술을 녹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씨네소파 영화배급협동조합

2

- 참여예술인 강정환
- 담당자 최동혁
- 협업활동 유형 제품기획
- 소재지 해운대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BOUT FxA Project 2022 '픽션들'

본 프로젝트는 지역의 아티스트와 지역 영화를 연결하여 문화예술 공동체를 형성하고 관객들이 영화를 깊이 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난여름,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10명이 다 함께 모여 <픽션들>을 관람하고 서로의 영감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해석으로 <픽션들>을 재창조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을 10월 22일, 23일 양일간 관객들에게 나누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영화창작자들은 관객에게 영화를 소개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고, 관객은 영화를 즐길 기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 영화창작자에게는 상영의 자리를,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영화 <픽션들>이 50여명의 관객과 첫 만남을 가졌고 본 프로젝트를 단초로 11월 전국 극장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Q3. 예술인과 함께 해결하고자 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예술인과 함께 전시의 퀄리티를 향상하고자 했습니다. 전시 공간이 낡은 빈집이었기 때문에 전기 설치부터 화장실 운영까지 전시 공간에서 전시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관객들이 영화를 오롯이 몰입하여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처음 참여하는 예술가로 저의 활동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이 서로 같아서 좀 더 수월하게 일했습니다. 이번 협업 과정을 통해 기업의 입장과 생각, 협업하는 동료들의 생각을 통해 제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Film Art Collaboration(FxA 프로젝트 2022)을 협업하면서 일반적인 전시와 차이점이 확실한 씨네소파의 기획으로 영화와 전시를 엮어서 풀어냈던 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크립터로 참여했던 영화가 매개가 되고 작년에 전시했던 공간이 이번 기획으로 다르게 표현되었다는 것이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Q3. 기존의 예술활동과 기업과 협업활동이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존의 예술 활동은 거의 혼자 활동하였기 때문에 저의 가치에만 중점을 두고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업 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그 기업의 운영 방식, 내부 직원의 의견 등 여러 가지 가치와 현실적인 조건들을 종합해서 진행해야 했고 이 부분들이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배워야 할 점들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번 협업 활동을 하면서 전시의 경험이 없는 기업에 전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알려주고 조언해 주면서 기업이 전시의 전체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기업의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전시를 만들거나 다른 예술가와 전시를 만들 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업노트

Film Art Collaboration (FxA 프로젝트 2022)

수도권에 과 집중화된 영화산업 때문에 지역의 독립영화들은 상영 기회가 거의 없고 관객들도 지역의 독립영화를 보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지역 기반의 문화 예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콘텐츠들이 생겨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FxA 프로젝트 2022는 지역 중심의 2차 콘텐츠를 개발하고 독립영화를 매개로 아티스트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 예술의 다양성을 넓히고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1.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과 2차 콘텐츠 개발

FxA 프로젝트 2022는 모집을 통해 지역에서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10명의 예술가를 모집하였습니다. 예술가들에게 프로젝트 소개와 서로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또 지역의 독립영화 <픽션들>을 감상 후 자신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2차 작업물을 만들고 이를 전시로 관객에게 선보입니다.

2. 지역의 오래된 공간에서 지역의 문화 예술 콘텐츠의 새로운 시도

전시는 초량에 50년 이상의 세월을 간직한 빈집에서 진행됩니다. 무분별한 재개발로 지역 세월과 역사가 있는 장소가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FxA 프로젝트 2022는 지역의 세월과 역사가 흐르고 있는 장소에서 지역 예술가의 영화와 전시를 통해 지역이 가진 역사를 문화 예술의 콘텐츠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3.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시민의 지역 문화 예술 감상 기회 제공

전시는 미술 장르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음악, 퍼포먼스, 영상, 심리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시민에게 지역의 독립영화 상영과 더불어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까지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융복합적 새로운 콘텐츠로 관심을 유발하여 지역의 문화 예술의 저변을 넓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주)이중섭 문화마을

3

- 참여예술인 김도연
- 담당자 원성보
- 협업활동 유형 사회공헌활동
- 소재지 동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2022년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기존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며 작품 제작, 홍보 활동과 함께 2022년 이중섭 골목길 걷기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걸으면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미술 전시회를 선보일 수 있었고 마을 주민 혹은 참여 작가들, 관계자분들이 만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 예술, 미술 교육과 미술 전시회 프로젝트에 스토리텔링을 더한 activity 하고 재미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시회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미술 수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작품 활동 경험과 주민 예술가라는 타이틀로 각자가 긍지를 가지고 참여해 신개념의 걷기 미술 전시회 개최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미술 전시회는 정적인 관념이 강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동적인 관념으로 다가가 동행이라는 문화를 전하고자 새롭게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고, 느끼고, 걸으며 함께하는 신개념의 미술 전시회를 한층 더 구성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Q3.

예술인과 함께 해결하고자 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이중섭 골목길 걷기 미술 전시회라는 새로운 전시회를 개최하며 좀 더 낮은 문턱으로 마을 예술인의 참여를 이끌고 activity한 미술 전시회를 널리 홍보하고 이슈화했습니다. 골목길을 주제로 한 캠페인으로써 기존의 골목길보단 이중섭의 명성이 들어간 높은 브랜드파워로 이중섭이 살았던 동구 범일동 산복도로 골목길의 스토리텔링을 전개하여 이중섭 선생의 삶과 비하인드 이야기를 그 골목길 주변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걷는 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 마음 치유가 가능한 전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시회를 이슈화 시켜 미술이 정적이 아닌 동적인 활동으로 차별화되고, 움직이는 전시회라는 mz세대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색다른 모습의 전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개인작업과 미술교육을 병행하며 제가 다진 재능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가르칠 수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50~60대의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난이도의 수업을 계획하고, 그 경험을 응용하여 더욱더 다채로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다년간의 미술교육과 전시 경험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과의 직접적인 미술교육의 현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미술에 애착을 가지며 본인의 작품에 열의를 다하시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Q3. 기업과 협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중섭 문화마을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 중 하나로 올해로 4회째 아뜰리에 in 범일이라는 전시 타이틀을 가지고 매년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인은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미술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업이 목표로 하는 바에 저의 교육 출강과 작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량할 것 같아서 협업을 결심하였습니다.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기존에는 주로 캔버스에 팝아트, 캘리그래피, 전구 아트 등 평면작업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는 마을 주민의 흥미를 더 돋을 수 있고, 좀 더 색다른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캔버스 수업에서 벗어난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따라서 지점토를 이용한 냉장고 자석 만들기, 액세서리 트레이 만들기, 에코백에 민화 그리기, 드라이플라워를 이용한 비누 만들기 등의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협업노트

1. 마을 주민 미술교육 제공

이중섭문화마을의 홍보와 지역사회의 공헌을 위한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수업 프로그램 연구와 더불어 예술 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업의 일환으로 비누 만들기, 지점토를 이용한 공예품 만들기, 패브릭 아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의 미술교육을 제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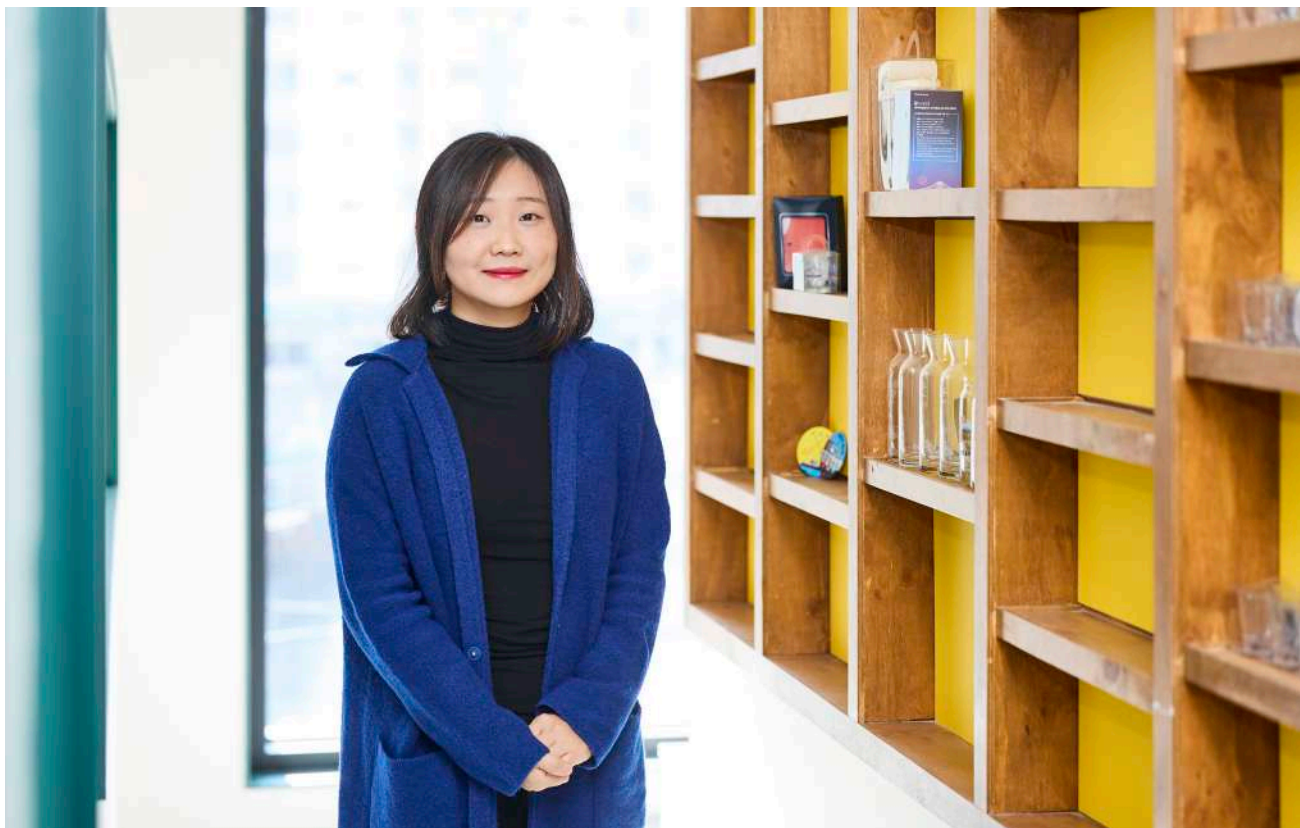
2. ‘아뜰리에 in 범일’ 전시회 개최

다양한 수업물을 바탕으로 ‘제 4회 아뜰리에 in 범일’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동구의 이중섭전망대 일대에 작품을 전시하고 더불어 이중섭문화거리 골목길 걷기, 포토존 체험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이목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주)착한세상

4

- 참여예술인 김선화
- 담당자 김정예
- 협업활동 유형 제품기획
- 소재지 영도구





기업/기관

-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부산 16개 구군 핫스팟, 랜드마크를 감성적인 부산을 표현하고자 한 굿즈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 부산 16개 구군에 위치한 다양한 관광지를 매력적이고 감성적인 굿즈 제작으로 지역 예술인과 협업을 통한 지역 문화의 다양한 감성을 추구하고 부산 강강이마을 지도 손수건, 유리잔, 소주잔, 뱃지, 손거울 등으로 제작해 친근한 부산 이미지로 부산 여행의 즐거움과 인지도 상승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 Q3. 예술인과 함께 해결하고자 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 지역의 문화와 관광지를 더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하여 매력적인 부산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술인

-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작업과 시선의 교류에서 오는 소통으로 나의 일과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해보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사회적 기업인 '착한세상'이 추구하는 목표나 기업의 시선에서 보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즐겁고 인상 깊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과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잘 조율되게 프로젝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 6개월은 반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짧게 느껴집니다. 부산 예술인파견지원사업으로 '착한세상'이라는 기업을 알게 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부산의 다양한 이미지를 제작하고 상품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 기업이 사업을 통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프로젝트에서 얻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협업은 또 다른 각도로 작업의 방향과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협업노트

1. 부산의 16개구군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 작업

착한 세상은 부산 16개구군의 관광문화 예술 자원을 발굴하여 콘텐츠 개발 및 지역상품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부산 구군의 대표적인 장소와 이미지를 리서치하여 기업의 다양한 상품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업 기간 동안 2023년 강강이 마을 지역 아트상품으로 손수건과 텀블러 등이 제작되었습니다.

2. 부산의 랜드마크 라인 드로잉 작업

부산의 대표 관광 기념품 10선에 선정되고, 다양한 부산의 모습을 담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관의 특성을 살려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라인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협업을 하였습니다.

3. 부산 팝업 상품 개발

16개구군의 일러스트 작업을 바탕으로 부산의 풍경을 담은 팝업 키트 샘플을 연구하고, 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드뉴스

5

- 참여예술인 김원
- 담당자 이승엽, 강금비
- 협업활동 유형 홍보 및 마케팅
- 소재지 해운대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올드뉴스는 로컬의 문화와 축제 등 매력적인 이야기를 수집하고 디자인하는 로컬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부산 달맞이길에 있으며 2014년 <대평동강강이마을지도> 제작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다년간 다져온 로컬에 대한 전문성과 올드뉴스가 가진 감각을 활용하여 자체 프로젝트인 지하철 여행 책자 'UNDERGROUND BUSAN(가제)'의 원고 작업을 예술인과 함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더불어 친절하면서도 내밀하고 밀도 높은 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Q3.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예술인이 워낙 프로페셔널하게 임해주어서 모든 협업 활동이 기억에 남지만, 협업 활동 이외에 개인적으로 사전답사와 시장조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고 긍정적으로 피드백 주셨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김원 예술인과 함께하여 비로소 본 프로젝트의 의미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

-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방송이라는 매체에 맞춰 자료를 모으고, 구성하는 일에 훈련되어 있다가 지도책 제작을 위한 글을 쓰고, 조율해가며 작업하는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감각을 가진 재능 있는 인재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가진 다른 역량이 개발되고 확장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늘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고만 교류했는데 모르는 이들과 협업을 하고, 두려움이 없어진 것도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기업에서 <외국인을 위한 지하철 부산 여행 지도>를 만들자고 제안해 준 것 가장 맘에 들었습니다. 평생 부산에서 나고 자라면서 부산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 일을 직접 수행할 기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유명하지만 가보지 못했던 곳을 직접 가보고, 실제 이동 시 확인할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원래 부산이 좋았지만 부산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Q3.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지역을 잘 아는 이들의 경험을 담고, 외국인들이 편하게 여행하면서도 부산만의 특징과 정서를 알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여행정보지만 부산이라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결한 문장에 애정을 담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칫 사적인 경험과 트렌드에 매몰되지 않도록, 한편으로는 무미건조한 정보의 나열이 되지 않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수정을 거듭하는 동안 경험이 많은 <올드뉴스>가 균형을 잘 잡아줬습니다. 신뢰 속에서 따뜻한 소통이 넘치는 협업을 할 수 있어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Q4. N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셨는데, 올해만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작년에는 각 분야의 예술인 5명이 협업하여 다양한 작업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의 예술인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각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개인형으로 참가해 기업의 요구에 맞춰 자신만의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예술적 성과보다는 기업의 업무를 완수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협업노트

부산의 디자인 기업과 지역 작가의 만남. 한 번도 같이 일해본 적 없는 둘이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부산 사람도 부산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저마다 사랑하는 부산의 공간을 지도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견 취향을 많이 타고,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다시 머리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1. 지하철로 이동하는 외국인을 위한 부산여행 지도책을 만들자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외국인이 많지만 부산에 대한 정보는 오래되고, 협소하다는 점에 착안,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이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로 부산을 여행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바탕으로 외국인이 꼭 알고 가면 좋은 명소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부산을 더 알고 싶고, 또 찾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지도책을 제작하는데 적합한 정보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2. 여행자를 위한 Tip 페이지

부산, 그리고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알아야 할 소소하지만 알찬 팁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씬 먹는 법, 노래방의 종류, 여행 시기와 장소에 맞는 부산의 축제들, 한눈에 내려보기 좋은 전망대, 부산 음식 10선 등을 선정했어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모노마인드

6

- 참여예술인 김혜윤
- 협업활동 유형 제품기획

- 담당자 이지은
- 소재지 해운대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모노마인드는 부산의 개성 있는 마을들을 캐릭터로 만드는 로컬 캐릭터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과는 캐릭터 개발을 위한 부산의 마을과 랜드마크 조사 및 원고 작성을 시작으로, 캐릭터 설정 및 4컷 만화 등 실질적인 콘텐츠 제작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기업이 로컬 캐릭터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예술인에게는 캐릭터 개발에 필요한 소스(source)인 부산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조사하고 정리해 주는 역할을 기대하였습니다. 묵묵히 84여 곳이 넘는 부산의 랜드마크를 정리하고, 독특한 설정도 제안해 주시며 기대보다 더욱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3.

예술인의 역할로 기업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존에 부산의 랜드마크를 아이콘으로 그려서 눈을 붙이는 정도의 1차 원적으로 보여주던 캐릭터 디자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예술인과 함께 진행하며, 외형적인 특징보다는 캐릭터 탄생 배경과 로컬의 특징을 녹인 사례를 보여주는 등 입체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정면으로 부산을 보여주기보단, 이야기를 녹아내어 재미있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방향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업 모노마인드에서의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은 앞으로 개인 창작 활동에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며 예술 창작의 영역에 대한 협소했던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창작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부산지역 명소를 공부하며 한국사에 큰 획을 그은 부산의 역사와 위대한 인물, 천혜의 자연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부산 시민으로 자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부산 도서관에서 부산 관련 참고 서적을 리서치해서 부산 명소 84곳의 소개 글을 썼습니다. 부산의 숨은 명소를 알게 되고, 스팟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까지 알게 되어 보람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나 이태석 신부 등 부산에 위대한 인물이 많았다는 걸 알고 애항심이 커졌습니다. 또 부산을 되살리려는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하고 성실한 노력을 알게 되어 감동하였습니다.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기업의 기획에 동참한다는 것에 활력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기업 측에서 원고에 대해 꼼꼼히 피드백을 주어서 장단점을 알게 되어 감사하고, 다양한 장르(산문, 카드 뉴스, 캐릭터 동화)를 접할 기회가 주어져 무척 흥미롭고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습니다. 여러 콘텐츠의 매력을 알게 되어 사고의 폭이 넓어졌고 다양한 시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Q4. 기업과 협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업이 추구하는 기획에 예술인의 예술적 재능이 잘 버무려져 서로가 윈윈하는 활동이기를 원했습니다. 동화와 캐릭터 콘텐츠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협업 과정 중 서로에게 많이 배우리라 믿었기 때문에 협업을 지원했어요. 젊은 세대의 창의성과 순발력에 기성세대의 통찰력이 더해지면 좋은 시너지가 나리라 기대했습니다.

협업노트

1. 부산 명소 소개글 작성

부산의 명소 84곳의 소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부산 도서관에서 리서치 작업을 거쳐 감성적이고 인문적 의미까지 담은 소개 글을 작성하려 했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관광자원으로서 부산의 매력을 표현하려 주력하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되도록 세대별 특화된 부분을 찾아내고 언급했습니다. 자연과 문화는 우리에게 힐링과 즐거움, 감동을 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많은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부산이 되도록 널리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부산관광 카드뉴스 만들기

짧고 간결한 텍스트를 이미지와 함께 전달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기존의 협업에서 만들어진 부산 명소 84곳의 소개 글 중에서 이쁜난 곳을 선별하여 카드 뉴스로 만들었습니다. 카드 뉴스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라 가독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PPT로 카드 뉴스 시안을 직접 만들어보고 문구는 밝고 매력적이며 친근한 구어체적 표현이 되도록 했습니다. 정보를 캐주얼하게 전달하기 좋은 카드 뉴스를 활용해 부산 명소 명물을 알리고 싶습니다.



3. 로컬캐릭터 동화를 위한 4컷 만화 창작

로컬 캐릭터 발굴 작업과 동화 스토리 구축을 위한 4컷 만화 제작을 협업하였습니다. 부산 명소와 관련된 로컬 캐릭터에 친근한 생활 속 에피소드를 접목하여 4컷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고학년이 되면서 상상력이 시들어가는 아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상상의 샘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동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상상력은 인류 문화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미래는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로컬 캐릭터 동화로 부산을 더 잘 알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주)라텍

7

- 참여예술인 김정아
- 담당자 권혜리
- 협업활동 유형 사회공헌활동
- 소재지 사상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주)라텍은 2022년 설립된 업체로서 프랑스의 공장 자동화, 방폭 제품으로 유명한 Georhin 사의 공급업체입니다. 라텍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8년 공간의 일부를 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갤러리 및 공연장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참여 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아트클래스를 오픈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감성을 자극합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사내 유휴공간에 지역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 탄생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인력 없이 일반 제조회사에서 공간만을 가지고 운영 중인 갤러리다 보니 콘텐츠 개발을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탄탄하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만족도가 낮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저희 공간의 존재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예술인과의 협업을 원했습니다. 저희 기업에 지원한 여러 예술인들과 면접을 통해 대화를 해 보니 김정아 작가님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칭 후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여 매 주말 아트클래스를 진행할 수 있었고, 지역민들의 참여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Q3.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김정아 작가의 개인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쩌면 갤러리 오픈 이후 최대의 관심을 받은 전시가 아닌가 합니다. 김정아 작가님만의 특유의 색감과 그림체, 고양이라는 친근한 주제로 전시를 하여 그림에 관심이 없던 지역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엽서와 방문록에 적힌 내용들 대부분 따뜻한 느낌의 전시에 힐링을 받아 감사하다는 내용이어서 저희 기업에서 추구하는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복합문화 예술공간”과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주)라텍과의 협업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창작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디자인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보조의 영역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업에 있어서도 많은 자율성을 인정받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하고 기획해 갈 수 있었습니다. 기업과 협업이 딱딱하고 틀에 갇혀 있을 것이라는 저의 생각이 바뀌었고, 많은 부분 협업을 통해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프로젝트의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개인전에 생각보다 많은 관람객이 와주셨습니다. 저도 최대한 많은 날 전시장에 머물면서, 작품 설명과 이해를 돕는 도슨트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협업을 통해 만든 '체험활동지'에 작은 손으로 그려준 아이들의 그림을 볼 때면, 예술인으로서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와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주)라텍에는 갤러리와 클래스룸이라는 인프라가 훌륭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523갤러리를 통해 많은 예술가분들과 협업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들이 시각예술과 예술체험을 하는 과정과 결과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여겼기 때문에 함께 협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주)라텍과 매칭이 되었고 아트클래스와 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진행했던 모든 과정과 결과들이 예술가로서 저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기업에서도 많은 자율성을 인정해 주셨던 부분으로 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즐겁게 협업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번 협업을 통해 크게 두 가지 기획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트클래스였고 두 번째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523갤러리' 개인전이었습니다. 협업 공간이 가진 문화 예술공간의 특성과 장점 그리고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아트클래스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시기획에 있어서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구성과 전달 방식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만족할 만한 전시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덕분에 오셨던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기획과 활동에 있어서 예술인으로서 가진 역량이 기업에 스며들어, 최대한 많은 부분 협업하고 서로에게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협업노트

1. 아트클래스 '소셜드로잉클럽'

지역의 소중한 문화예술공간인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오일 파스텔 드로잉' 그리고 '에릭 칼의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한 장의 그림책 만들기' 아트클래스를 진행합니다. 각 클래스는 시즌별로 나누어 성인/어린이를 구별하고 연령층에 맞는 커리큘럼과 설명으로 진행하며, 지역민들에게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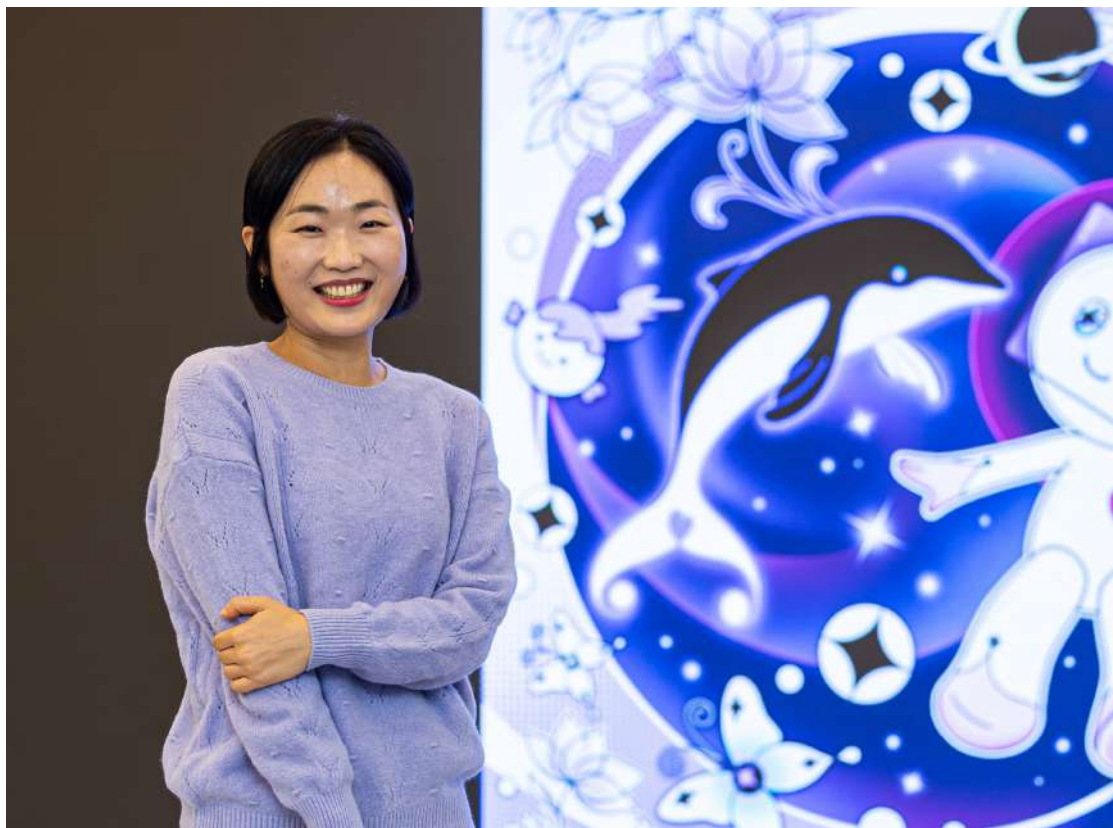
2. 김정아 개인전 '친애하는 나의'

'523갤러리' 에서 작가의 개인전 '친애하는 나의' 가 운영됩니다. 고양이를 주제로 한 3개의 섹션으로 구분된 전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갤러리의 특성에 맞춰, 딱딱한 작품 설명을 대신해 작가가 직접 작성한 편지를 배치해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도우며, 직접 도슨트 활동을 진행합니다. 방문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전시체험 활동지' 를 기획하고 배치하여 전시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는 전시입니다.

아트하랑

8

- 참여예술인 김지우
- 담당자 김병채, 박일곤
- 협업활동 유형 제품기획
- 소재지 금정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주)아트하랑은 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조성되는 복합문화시설인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쇼플렉스)'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개발사업은 공연장, 갤러리, 전시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각종 운동체험시설, 서점, F&B 등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쇼플렉스'라는 타운 이름으로 일상이 예술이 되는 부산의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이번 협업 활동은 온라인 활동뿐 아니라 미술이라는 장르를 통해 쇼플렉스의 상징성을 예술인을 통해 표현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통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협업 예술인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최종 작품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쇼플렉스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창작된 예술인의 작품은 쇼플렉스의 첫 번째 미술 작품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Q3.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2025년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가 새롭게 지어지는데 예술인과의 협업으로 제작되는 이번 작품은 쇼플렉스의 탄생을 의미하는 포스터로 첫 번째 미술 작품임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쉽지 않은 여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내면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의 의도와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작업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하나의 파도를 잘 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협업작업을 하면서 기업 캐릭터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디자이너로 일했던 경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케치로 가득한 노트를 넘기며 예전 생각이 나기도 해서 코끝이 찡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작업 결과물을 떠나 노력의 결실이 있는 것 같아 만족합니다. 이번 경험으로 한층 더 나아진 다음을 기대해봅니다.

Q4. 기업과 협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작가로 활동하기 전에 시각 디자이너로 10년,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디자인 제품을 제작하는 등 아트와 관련된 다양한 경력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작가로 데뷔해서 그런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쌓아 온 경력을 잘 활용하면서 아트가 기업과 어떻게 협업 되는지, 부산에서 작가로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협업노트

1. 쇼플렉스 세계관 및 스토리 개발

제목 : 탄생 (Come in to the world, Come in to the showplex!)

컨셉 : 우주 공간은 어머니의 배속을 상징합니다.

태초의 생명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탄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우주 공간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고 있는 우주아이의 모습은 다양한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문화 예술 공간 쇼플렉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탄생’은 세상에 나오게 될 ‘쇼플렉스의 찬란한 탄생’을 의미합니다.

2. 쇼플렉스 BI 컨셉에 따른 신규 캐릭터 개발

– ‘우주아이’ 캐릭터의 탄생

쇼플렉스 로고는 다양한 세계관이 모이는 우주를 개념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방형 사각형 중앙에 원을 품고 있는 쇼플렉스의 로고 모양을 응용하여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주와 같은 마음을 품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 캐릭터로 디자인하였습니다.

3. 쇼플렉스 개관에 관한 홍보 포스터 디자인

우주아이 캐릭터와 물고기 친구들, 우주와 바다, 자연의 요소를 조화롭게 표현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화합의 의미를 담은 일러스트로 완성하였습니다. 원형에서 휘몰아치듯 뻗어 나오는 레이아웃은 쇼플렉스의 로고를 참고하여 역동적으로 표현하였고, 개관을 홍보할 수 있는 타이틀과 조합하여 포스터로 완성하였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다양한 컬러로 표현하였는데 그것은 변화하며 나아가는 쇼플렉스의 다양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트모아 갤러리

9

- 참여예술인 김효은
- 담당자 황신애
- 협업활동 유형 제품기획
- 소재지 수영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아트모아갤러리는 광안리에 위치한 서양화 갤러리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시 기획 및 운영, 아트상품 제작 및 판매, 원데이클래스 및 단체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업 프로젝트로 아트클래스 및 아트 소셜 살롱 기획, 온라인 홍보, 마케팅 기획 및 디자인, 아트상품 제작 기획 활동을 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아트모아갤러리를 운영하면서 현재 해야만 하는 일들에 초점을 뒀다면, 예술인과의 협업 활동으로 아트모아갤러리가 발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재보다 더 나은 공간이 되도록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큰 2가지 성과로는 1. 펜드로잉 그림 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매주 선착순 마감일 될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 아트모아갤러리 1, 2층 공간을 리뉴얼하여, 기존 4명의 수강생에서 최대 10명까지 동시 수용할 수 있도록 2층 공간을 확장시켰습니다.

Q3. 예술인의 역할로 기업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협업과 예술인의 중요성을 알게 된 과정

아트모아갤러리는 1인 기업으로 모든 의사결정과 운영을 혼자 했었습니다. 운영에 있어 혼자 고민만 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실천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예술인 분과 협업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갔어요. 평소 고민하던 부분들이 저 혼자서는 생각해 내지 못했을 만큼 큰 성과를 냈고, 일반인이 아닌 예술인이어서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늘 해오던 예술 활동을 사업기획, 예산편성, 사업 진행 등 단계별로 나누어 사업화한다는 점에서 예술을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기업과 함께 원데이 클래스 방향을 고민하던 중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이고 수업 자료용 샘플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비 전공자 대상의 클래스이다 보니 다수가 그림 그리는 활동을 더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6개월간 계획했던 모든 사업내용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고 기업 측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협업 활동의 결과물 피드백을 빠르게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만족스럽고 보람되어 마무리라 생각하니 아쉽습니다.

Q4. N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셨는데, 올해만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사업에 참여했는데, 예술인 단체형 협업 활동과 개인형 협업 활동의 장단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와 사업 진행 방법에 변화가 많아 혼란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퍼실리테이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호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협업노트

1. 아트클래스 및 아트 소셜 살롱 기획 협업

아트모아갤러리 대표 클래스인 아크릴화 원데이 클래스의 샘플 그림을 협업하여 제작했습니다. 펜 드로잉, 수채화 등 참여 예술인의 특화 분야를 살려 250명 이상의 아트모아갤러리의 온라인 플랫폼 회원을 대상으로 한 아트 소셜 살롱을 기획하고, 샘플을 제작했습니다. 아트모아갤러리 내부 클래스 환경 조성 및 공간 리뉴얼을 협업하여 진행했습니다.

2. 온라인 홍보, 마케팅 기획 및 디자인 협업

건물 외벽에 배너를 설치하여 아트모아갤러리 활동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였으며, SNS 및 온라인 플랫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 활동을 통해 제작한 아크릴화, 펜 드로잉 등 그림 샘플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 편집했습니다. 특히 작업과정은 타임랩스,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업로드한 결과 원데이 클래스에 관심을 가지는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아트상품 제작 기획 협업

아트모아갤러리 로고 및 협업 작품을 활용하여 여러 디자인의 스티커 제작하였고,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들의 결과물을 위한 패키지도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길거리 홍보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덕천종합 사회복지관

10

- 참여예술인 박소산
- 담당자 이은주
- 협업활동 유형 사회공헌활동
- 소재지 복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센터로써 가정과 사회의 제반 문제를 예방, 치료하여 균형 있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지역주민들이 복구에 존재하는 지역 민요를 배우고 학춤, 뭉치춤을 통해 움직임 스트레칭 등을 배우며 문화 예술에 관련된 욕구 충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Q3.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학춤이라는 장르가 어르신들이 따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으나 반복적인 수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움직임을 따라가게 되고 춤을 배우는 과정에서 허리를 똑바르게 세우고 다리 힘을 기르는 등의 신체발달적 효과도 나타나 수업을 거듭하게 되며 그 효과성이 눈으로 보여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참여자들이 북구의 토속민요를 배우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과 큰 공감을 느껴서 본인들의 삶을 서로 얘기하려고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활동에 참석한 분들은 학춤을 통해 근력 형성 등 신체발달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Q3. 기업과 협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덕천 복지관은 본인이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 북구 지역에 속한 기관이라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Q4. 2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셨는데, 올해만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작년에는 기관별 파견예술인들의 인원이 많아 다양한 활동과 소통이 이뤄졌는데 올해는 단 한 명만 파견 활동이 이뤄져서 협업 활동이 미약한 점이 달랐습니다.

협업노트

1. 부산 북구 지역민요 알기

어르신들 대부분이 옛 민요는 알지만 우리 지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민요들이 있다는 것을 알며 지역주민으로서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요에 녹아있는 옛 문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업합니다.

2. 동래학춤 배우기

장수의 상징인 학을 통해 공감하며, 동래학춤을 통해서 올바르게 서는 법, 허리를 곧게 펴는 법 등의 자세에 대해 배우며 춤에 대한 가르침과 동시에 건강 스트레칭을 함께 접목해 협업합니다.

3. 움직임 배우기

풍선, 고무줄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움직임을 통해 상대방과 교감하고 문화 예술에 대한 친밀감을 통한 정서적인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협업합니다.



(주)대한소방공사

11

- 참여예술인 박흥석
- 담당자 신명수
- 협업활동 유형 홍보 및 마케팅
- 소재지 북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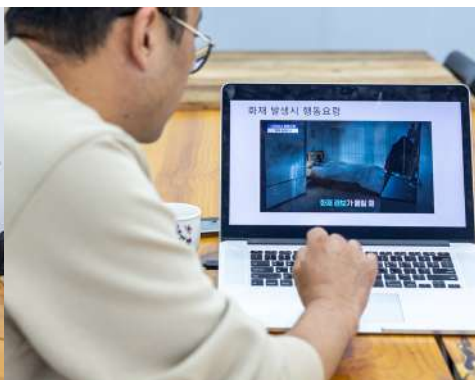
주식회사 대한소방공사는 법인설립 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부산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유지관리 및 전문소방공사업을 하는 소방기업입니다. 현재 학교 및 관공서, 각종 빌딩 및 공장, 고층 아파트까지 다양한 소방시설을 점검 관리하며, 소방시설보수공사 및 신축건물의 소방시설 등 소방공사를 하는 소방전문 기업입니다. 그와 더불어 유치원이나 학교, 산업현장, 시민들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문화 정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아동용 화재예방교육 공연 계획서 및 대본 개발과 화재예방교육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예술인들과의 창의적 활동과 예술협업을 통해 단순한 소방안전교육을 넘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안전문화 정착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Q3. 예술인과 함께 해결하고자 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해마다 화재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단순히 신고된 피해 금액만 하더라도 매년 30조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 기업은 다수의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과의 창의적 활동과 예술협업을 통해 단순한 소방안전교육을 넘어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의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아가 다양한 안전홍보 영상콘텐츠를 개발하여 안전문화 정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예술인

-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화재와 같은 평소 전혀 모르고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반에 화재나 소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교육을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생소한 분야에 대한 공부도 재밌었지만 무엇보다 실제 화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의 예술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화재 예방 교육 자료를 준비하면서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소중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전로프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점과 소방관들의 노고와 화재예방을 위한 민간 업체의 노력 등을 알게 되어 보람 있었습니다.
-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 기업에 계신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분야라 걱정도 많았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아도 귀찮아하시지 않고 일일이 가르쳐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Q4. 기존의 예술활동과 기업과 협업활동이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기존의 활동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협업 활동은 기업이 원하는 화재 소방 분야를 함으로써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협업노트

1. 아동용 화재예방교육 공연 계획서 및 대본 개발

화재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서 토의를 하던 중에 아동을 위해서는 설명보다는 교육극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어 아동을 위한 화재예방교육 연극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우선 대본과 공연 과정을 위한 자세한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공연 대본과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2. 화재예방교육 자료 완성

화재 예방교육을 위한 일반용 교육 자료를 PPT로 제작하였습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실제 화재 영상들과 수직 강하기, 완강기,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화재 예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진문화예술행동 홍

12

- 참여예술인 배은채
- 담당자 김기영
- 협업활동 유형 사회공헌활동
- 소재지 금정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여성’과 ‘노동’을 주제로 한 참여형 온라인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현장 여성 노동 당사자가 직접 이 게임을 플레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게임을 통해 경험하게 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이자 소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처음 만날 때부터 우리의 목표는 ‘잘 묻고, 대답하기’였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 자세히 톺아보고 들여다보는 것. 이를 통해 예술인의 장점을 더욱 잘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장점을 온라인 게임이라는 매체와 엮어 현장의 스토리를 보다 생생하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Q3.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예술인과 추진 과정 중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전담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각자가 겪은 현장 에피소드들을 생생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당시에는 웃으며 회상을 했지만 바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생각해보니 이걸 말 그대로 ‘권리 박탈’의 지경인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겠다 결심했고, 지금의 스토리 라인이 구축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술인

-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확실히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연극이 공연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다채롭게 스며들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배우가 아닌 기획·작가적인 능력을 발휘한 순간들도 인상 깊습니다. 막상 해보니 기업의 요구를 듣고 해결하며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는 재미도 있고, 앞으로도 다양하게 협업해보고 싶어졌습니다.
-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여성건설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라서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을 만났는데, 그제서야 어렵듯하게 짐작하고 있었던 걸 직면했습니다. 숨 쉬듯이 듣는 차별 발언들, 문제가 있는 걸 느끼지만 버텨야 하는 순간들.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다른 건, 게임접근성을 더 높이고 싶었는데 더빙을 못 하고 청각자료 활용을 못한 게 미련이 남아서 그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 Q3. 기업과 협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솔직하게 말하자면 월급이 필요해서였습니다.(웃음) 프리랜서니까. 사실 조금 더 다양한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기업에 제가 가진 색깔을 섞으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고, 소외되거나 차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지는 예술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꼭 콘텐츠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식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마음에서 협업을 결심했습니다.
-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 창작과정에서 차별이 있는 상황을 재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조심스러웠거든요. 예전에도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또 걱계 하고 싶지 않아서요. 아예 꿈같은 세상을 만들까 생각도 했는데… 대상에 따라 그 차별과 혐오를 확실히 보여줘야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응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하기 힘든 대치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동료가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한마디 해서 동료가 깨닫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협업노트

1. 여성건설노동자 실태 조사

노동환경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기사 및 논문을 조사하여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을 키워드화 했습니다.

2. 게임 <말숙이 우주보내기 프로젝트> 개발

어쩌면 미래세대에도 계속 될지 모르는 노동환경 속 성차별을 그려냈습니다. 2050년 오염된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성건설노동자 '말숙' 과 그의 친구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플레이어들이 직접 '말숙' 의 행동을 선택하여 우주에 갈 수 있게 돕습니다. 예술의 협업으로 논문과 기사로 존재했던 사실들을 게임에 담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닿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3. 말숙에게 보내는 응원메세지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들이 직접 주인공 '말숙' 에게 편지를 남겨 공유합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서 받은 위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만의 언어로 전달합니다. 어쩌면 나 자신인, 세상의 모든 '말숙' 을 응원하고 또 받는 과정에서 연대를 느끼는 방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하랑플러스

13

- 참여예술인 서혜인
- 담당자 이선애
- 협업활동 유형 교육훈련
- 소재지 서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함께돌봄센터 하랑플러스는 민간 봉사 법인 (사)아름다운사람들이 서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센터로 2020년 개소했습니다. 본 센터는 문학, 미술, 음악, 외국어, 체육 등 교과과목 이외의 학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생활 속에서 예술을 찾아보며 아동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여 상황극을 만들어 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 사람 앞에서 표현해 보고 발표하여 자신감과 표현력을 길러 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Q3.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동물농장 이야기 중 닭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며 동물의 특징을 몸으로 묘사해 보는 활동과 자신의 개성으로 동물을 표현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며 여러 동작들이 많이 나와 아름다운 춤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 아동의 춤이 모여 전체적인 춤 공연이 되어 하나가 전체로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술가의 기능보다는 참여자가 원하는 것(want), 필요한 것(need)에 중점을 두고 무용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재와 주제, 소품 등이 연구되고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적용되고 검증된 소중한 연구 자료가 단발적으로 실행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무용교육의 ‘교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작업을 연계하고 싶다는 계획을 세워봅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초반과 중반은 목표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동물농장” 편이 시작되었습니다. 닭들의 이야기가 주제였습니다. 날개짓하며 해를 깨우는 울음소리, 날개짓하며 퍼드득거리는 닭 춤, 싸움 춤, 알을 품은 암탉의 모습 등.. 닭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묘사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동안 아동들은 신나고 즐거움 속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소품 담당, 대본 담당, 배우, 댄서 등 각자의 역할을 스스로 정하였고, 무대 소품도 멋지게 척척 만들어 주는 등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이때 아동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던 표현의 높은 담창에서 빠져나온 듯해 보였고, 이 시점이 지나면서 재기 발랄한 아이디어와 표현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졌습니다. 이때의 변화가 인상적이고 감동적입니다.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참여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보게 되어 감사하였습니다. 센터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 1위로 무용이 올랐다는 센터장님의 말씀에 감사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는데, 이제 수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올 한해 6개월간의 경험은 언제, 어디서든지 멋지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멋지게 성장할 하랑플러스 친구들 그리고 센터장님, 복지사 선생님... 진정한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협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상상과 창조입니다. 상상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힘이 있어야 자신만의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수용 받아 본 경험이 없을수록 맛과 틀림에 많이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협업 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표현이 맛과 틀림이 없고, 다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임을 인지시키며 인정받고 수용 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협업노트

1.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신체접촉과 소통의 움직임

- 소주제 : '부정 풍선' 과 '긍정 풍선' 으로 나의 감정표현, 감각 깨우는 길 건기로 오감 깨우기, 색깔과 만나는 움직임 소통 놀이, 소통하는 움직임과 춤(리더와 따라하기), 쟁거와 함께 추는 춤, 몸으로 말하는 유퀴즈
- 참여자의 성향과 특징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며 서로 알아가는 라포 형성하기
- 몸의 다양한 감각으로 체험하며 즐거움과 호기심 느끼기.

2.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신체활동 범위 확장과 표현

- 소주제 : '링' 을 이용한 신체 움직임과 춤, 고깔콘의 눈으로 공간 탐색, 거울 되어 움직임 표현하고 따라 하기, 나다움을 찾는 여행&애벌레의 꿈, 나다움을 찾는 여행&나비의 꿈
- 다양한 도구를 통한 신체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가기.
- 내면의 무의식의 힘을 신뢰하며 경험하기

3.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말하기

- 소주제 : 기분을 날씨로 표현하는 움직임과 춤, 평소 자주 느끼는 감정으로 움직임과 춤, 전래놀이로 움직임과 춤&동대문을 열이라, 알록달록 나의 변신.
- 나의 감정과 생각은 어떻게지? 객관적으로 알아가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말하는 힘 키우기.

4. 백설공주 이야기로 표현과 창작

- 소주제 : 백설 공주의 어린 시절, 거울과 왕비, 사냥꾼과 백설공주, 난쟁이와 백설공주, 왕비의 전투
- 백설 공주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극의 줄거리를 패러디하고 움직임과 춤극으로 표현하고 창조하기

5. 다양한 움직임 체험과 동물로 감정이입 및 창작표현

- 소주제 : 인간 도미노, 내 마음의 감정이 수상해, 동물농장 이야기로 상상과 창조
- 도미노의 연속성으로 움직임을 개발하여 개인기, 군무 등 무용 작품 만들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동물의 특징을 상상하며 움직이기, 움직임과 대본 만들어 작품 만들기.

6. 동화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창조하고 공연

- 소주제 : 해님달님 이야기로 상상과 창조, 우리들의 피날레 무도회
- 동화 속 등장인물이 되어 대사 읽기, 춤극 만들기, 동물 춤과 왈츠 춤으로 피날레 무도회 열며 한 해의 성과를 춤으로 마무리하기.

다함께돌봄센터 하랑플러스

14

- 참여예술인 백은석
- 담당자 이선애
- 협업활동 유형 교육훈련
- 소재지 서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다함께돌봄센터 하랑플러스는 민간 봉사 법인 (사)아름다운사람들이 서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센터로 2020년 개소했습니다. 본 센터는 문학, 미술, 음악, 외국어, 체육 등 교과과목 이외의 학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아동의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 내어 펼쳐보고 사고력을 길러주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의 흐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자신의 소중함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아동으로 길러주었습니다.

Q3. 예술인의 역할로 기업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발표력 향상.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기를 많이 어려워하였으나 선생님과의 질문과 피드백을 통하여 생각의 폭이 넓고 다양해져 그 생각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없이 자신의 생각을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이들의 마음은 그 자체가 동시입니다. 파견지원사업을 통해 동화 창작에 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얻어 가는 것 같습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동시를 썼던 모든 시간이 기억에 남지만, 그중에서 9월에 했던 추석 골든벨과 추석을 소재로 동시를 쓴 게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은 ‘송편’을 소재로 동시를 많이 적었습니다. 서툴게 적었지만 가족과 함께 즐겁게 나눠 먹고 싶다는 바람이 꾸밈없이 전달되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문장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번 사업은 특히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기업과 원활한 소통으로 내가 계획했던 수업을 맘껏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마음을 열고 글을 쓰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보람이 느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저 역시 성장하는 게 느껴져 기분이 좋습니다.

Q4. 기업과 협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나 역시 성장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동화를 쓰면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수업하고 글을 쓰는 것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협업노트

1. 아이들의 생각 유연하게 하기

기업과 논의해 아이들에게 문법이나 글쓰기 기초를 알려주는 수업은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학교나 학원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튜브, 그림책, 애니메이션,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보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감상은 그림이나 글 등 자유롭게 표현하게 했고 발표를 통해 아이들만의 고유한 생각들을 공유했습니다.

2. 동시 쓰기

동시 3~4편을 아이들과 함께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동시를 읽은 후 아이들은 머릿속에 맴도는 시상들을 노트에 적어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매주 1~2편의 동시를 발표했습니다. 센터장님과 하람 선생님께서도 함께 참여해 아이들의 동시를 감상하고 좋은 동시 뽑기를 했습니다.

3. 시화전

아이들은 자신이 쓴 동시에 그림을 그려 하나의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을 모아 작은 시화전을 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감과 자아 충족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이다아트 협동조합

15

- 참여예술인 심중후
- 담당자 이은지
- 협업활동 유형 제품기획
- 소재지 수영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아트마켓, 문화예술교육, 관광기념품을 다루고 있어 각 분야 프로젝트의 사용되는 비품 및 전시품,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프로젝트 1. 아트마켓 전시품 제작 - 부기를 상형화하여 부기 목마 제작

프로젝트 2. 문화예술 교육 교구제작

- 부기 목마를 업그레이드한 부기 연필꽂이 제작

프로젝트 3. 아트마켓 및 관광 굿즈의 시그니처 등 제작

- 동래 마켓의 주제인 온천을 중심으로 3D 등 제작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모이다아트 자체에서 디자인의 한계가 있는 3D 작업을 협업을 통해 많은 시도 및 제작 전 사전 시행 등을 통해 실패 확률도 줄이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Q3.

기업만의 특별한 점,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업만의 특별한 점은 문화예술교육, 전시, 아트마켓, 관광기념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예술인과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술인

-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평소 혼자만의 작업 방식에만 몰두해있다가, 기업 측과의 협업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작 방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모이다아트협동조합과 함께한 부산 시민공원에서의 행사에서 부기 캐릭터를 이용한 목마를 제작하였는데, 아이들이 직접 타고 놀고, 물건을 거치 하거나 누워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 언제나 그렇듯 예술인 협업은 예술인에게 산소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일하다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함께 일하게 된다는 것이 긴장되기도 하면서, 별 탈 없이 6개월간의 과정을 소화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 제 전공을 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다른 협업 활동에서는 캐릭터 그리거나 문구 만들기 등 다른 분야의 예술 활동을 겸했는데, 제가 예술 활동으로써 제 경력과 동일시되는 전공을 살린 활동을 했을 때에도 예술인 협업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목공예가 예술인 협업에 얼마나 비중 있게 녹아 들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Moida art



협업노트

1. 부기 캐릭터 목마

모이다아트 협동조합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디자이너로 참가하여, 참가부스와 인디고 텐트 등을 디자인하고 수정, 수리하였으며, 부기 캐릭터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체험하며 놀 수 있는 목마를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행사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 굿즈개발

고래를 이용한 CNC 용역과 부기 캐릭터를 이용한 연필꽂이를 디자인 개발하면서 다양한 굿즈 아이디어를 통해 레이저 용역, CNC 용역 등 다양한 목공 방법과 외주를 동원하여 퀄리티 있는 굿즈를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 영화의전당

16

- 참여예술인 유혜린
- 담당자 신성은, 전아름
- 협업활동 유형 사회공헌활동
- 소재지 해운대구



기업/기관

-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시민 대상 예술 교육과 기관(라이브러리) 이용 안내 콘텐츠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1) 단편 애니 파고파고(단편 애니메이션 감상 및 그림 교육) 2) 스토리텔링 극장영화 감상을 통한 서사 창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 무료 교육, 단기 교육으로 시민들이 더욱 쉽고 즐겁게 영화의전당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영화의전당이라는 특성에 맞게 영화를 활용한 예술 교육을 기획했습니다.
- Q3. 예술인의 역할로 기업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라이브러리 개관(2022년) 이래 시민대상 교육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시민대상 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수강생 모집, 홍보, 진행 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몇 년째 참여하고 있는데, 다양한 대상과 형식의 예술/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경험의 폭이 넓어져서 좋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영화에서 배우는 문학이라는 컨셉으로 '스토리텔링 극장'이라는 성인 대상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참여자들이 다들 열심히 해주셨고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 주셔서 뿌듯했습니다.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6개월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루어질 리 없는 욕심이지만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했던 기관과 예술인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습니다.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 프로그램 진행은 많이 해보지 않아서 더 경험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아이들이나 가족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과 다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협업노트

1. ‘스토리텔링 극장’ 진행

‘스토리텔링 극장’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학 프로그램입니다. 진행 장소가 영화 의전당인 만큼 영화에서 배울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며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영화의전당은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 영상을 볼 수 있는 장비와 공간이 잘 갖추어진 곳이라서 참여자들과 편안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작품 감상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 큐레이션

영화의전당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작품 중 추천할 만한 영화나 도서를 골라 짧은 감상평을 썼습니다. 음악에 관련된 작품,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추천하는 작품 등 테마에 맞는 작품들을 소개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영화와 도서 등 작품을 감상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떤 작품을 감상할지 고민하시는 이용자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작품을 예술인(작가)의 시선으로 큐레이팅 하여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3. 라이브러리 소개

영화의전당에 있는 영화 도서관(라이브러리)는 어떤 곳인지 안내하는 작업을 안희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라이브러리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라이브러리의 위치나 이용 방법 등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홈페이지나 더블콘 건물에도 시설 설명이 들어가 있지만, 동물 캐릭터를 활용하여 눈에 잘 띄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좋은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재) 영화의전당

17

- 참여예술인 안희정
- 담당자 신성은, 전아름
- 협업활동 유형 사회공헌활동
- 소재지 해운대구



기업/기관

-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시민 대상 예술 교육과 기관(라이브러리) 이용 안내 콘텐츠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1) 단편 애니 파고파고(단편 애니메이션 감상 및 그림 교육) 2) 스토리텔링 극장영화 감상을 통한 서사 창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 무료 교육, 단기 교육으로 시민들이 더욱 쉽고 즐겁게 영화의전당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영화의전당이라는 특성에 맞게 영화를 활용한 예술 교육을 기획했습니다.
- Q3. 예술인의 역할로 기업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라이브러리 개관(2022년) 이래 시민 대상 교육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시민 대상 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수강생 모집, 홍보, 진행 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술인

-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회화 작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영화와 같은 다른 매개체의 표현에 대해 알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영화의전당과 협업하며 단편영화 그중에서도 특히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다양한 표현에 대해 연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림책 작업과 같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영화작업에서 같은 주제의 다른 표현법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림책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작업 등 연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다른 곳과 달리 영화의전당은 예술인이 2명 배정되어 동화를 쓰시는 작가 분과 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협업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얻는 문장으로 적어 내려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 새로운 분야를 알아가고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과는 다른 형태의 작업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가질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화의전당은 예술가에게 적당한 분량의 작업만 요청하셨고 협업 활동에도 충분한 지원을 해 주셔서 함께한 예술가분과 영화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 Q4. 기존의 예술활동과 기업과 협업활동이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현재 기획과 창작활동을 겸하고 있기에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많은 부담감을 안고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기업과의 활동은 많은 부분에서 기업의 담당자와 상의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 안정적으로 활동에만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협업노트

1. 예술체험 프로그램 [단편애니 파고 파고]

픽사에서는 애니메이터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단편 작품을 기획하고 다양한 주제의 단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편 애니를 보고 함축된 애니의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 애니메이터의 작업 일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 예술체험 프로그램 [스토리텔링]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진행되는 시나리오 작업은 작은 소재에서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며 스토리텔링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회화, 영화, 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얻어 스토리텔링하고 문장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협업 활동으로 하였습니다.

3. 라이브러리 사용법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는 영화를 탐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료와 매거진 시나리오 등 영화관람과 함께 영화를 더욱 깊숙이 알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알기 쉬운 공간 사용 방법을 인스타그램용 카드 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주)예술은공유다

18

- 참여예술인 엄지영
- 담당자 심문섭
- 협업활동 유형 제품기획
- 소재지 수영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예술은 공유다’는 부산을 중심으로 공연 콘텐츠 개발과 제작 유통에 중점을 둔 기업입니다. 부산을 넘어서 보다 다양한 공연예술인들과 함께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공연제작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지속 가능한 공연 콘텐츠 상품을 위해 배우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협력 예술인과의 특징점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희곡 개발과 발견을 진행함으로써 2023년 기업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안정적인 기준을 보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에는 10여 작품에 달하는 작업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기업의 주요 공연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3.

기업만의 특별한 점,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공연 콘텐츠를 주요 상품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협업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예술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요즘은 대부분의 극단은 기존의 작품보다는 창작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활발한 창작활동은 환영하는 바이지만 실은 저작권 문제나 제작상의 어려움도 큼니다. 배우의 수급이나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여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명작이라는 작품을 그것도 매달만 나서 무대에 올린다는 것은 참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특히 낭독작품마다 홍보자료를 위한 소스를 찾는 것도 이번 활동의 일부여서 매달 그 작품의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도 재미나고 또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명작이라고 소문만 무성하게 듣고 처음으로 접해본 대본도 있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예술은 공유다>의 참여 예술인이 아니었다면 배우로 참여하지 않는 작품의 경우 슬쩍 거를 수도 있었을 텐데 참여 예술인이었기에 관객으로도 필수적으로 참석하며 개근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 Q3. 기업과 협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평소 협업 기업인 <예술은 공유다>의 작업들을 보면서 한번 작업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연극이 아닌 다른 작업을 해낼 수 있을까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파견 예술인 활동을 하면서 다른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모르면 자신의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기에 자신에 대한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 Q4. N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셨는데, 올해만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올해는 기업과 예술인이 1:1이어서 그런지 기업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활동에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원하는 방향이 일치해서 저는 비교적 즐겁게 작업을 했으나 일방적인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힘들어 하는 예술인도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단 쪽의 담당자분이 모니터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트러블을 잘 조율해 주는 느낌이 들었고, 중간중간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셔서 올해의 파견 예술인 활동은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협업노트

1. 캐주얼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관객의 기호 변화에 따른 클래식 공연(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 관객 맞춤형 공연개발과 적용을 하였습니다.

2. 낭독공연

20세기 명작 희곡 낭독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배우를 통한 인큐베이팅 극장의 초기 희곡발견 과정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오픈아츠 스페이스머지

19

- 참여예술인 이선옥
- 담당자 박진경
- 협업활동 유형 홍보 및 마케팅
- 소재지 금정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openARTs spaceMERGE에서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예술인과 〈심야 갤러리〉, 〈2022 Internet 12h Live Performance 굿모닝? 아티스트!〉, 〈2022 open ARTs spaceMERGE〉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기록함에 있어서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신념으로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과 이러한 아카이빙 활동의 결과물로 실제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Q3. 기업만의 특별한 점,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openARTs spaceMERGE?머지는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곳입니다. 예술인과 협업 결과물의 도출뿐만 아니라 본 단체와 예술인의 공동 협업 또는 기획을 통해서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술인

-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창작 결과물 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아카이빙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구상부터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작업노트와 에스키스, 사진 등을 기록하고 정리하면 스스로의 작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관람자에게도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도록 편집 작업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전시와 퍼포먼스를 보고,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Q3. 기존의 예술활동과 기업과 협업활동이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예술창작 활동에서는 작업의 과정과 결과물이 정해진 기준 없이 창작자가 만들어간다면 기업과의 협업은 더 분명한 객관적인 목적과 의도 정보전달과 기록이 있고, 그에 맞는 작업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Q4. N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셨는데, 올해만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2017~2020년까지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4~5인의 팀으로 참여했습니다. 일대일로 기업과 협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접 예술작품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다른 작가들의 활동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는데 사진과 퍼포먼스 위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창작품이 남지 않는 사진과 글, 영상 등의 기록으로 남겨진 다양한 활동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협업노트

1. 심야갤러리 도록 작업

‘심야갤러리’는 심야 영화처럼 심야 시간에 열리는 갤러리, 미술관을 생각하며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미술작품 감상과 미술 체험, 작가들과의 대화, 경매까지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된 심야갤러리를 기록하는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2. 2022 Internet 12h Live Performance 굿모닝? 아티스트! 도록 작업

백남준의 텔레비전 쇼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오마주한 기획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12명의 전위적 행위예술가들이 밀양에 모여 인터넷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20 일간의 전사와 이를 동안 펼쳐진 라이브 퍼포먼스를 정리하여 도록으로 만들었습니다.

3. 2022 openARTs spaceMERGE 도록 작업

매년 한해 동안 마지에서 진행한 다양한 활동을 모아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도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희락원

20

- 참여예술인 이정윤
- 담당자 정희정
- 협업활동 유형 조직문화개선
- 소재지 금정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희락원 아동들을 위한 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 희락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 예술을 통한 공간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하여 아동들이 새롭고 다채로운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사들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낮추고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아동들이 어떤 장르의 예술을 만나더라도 과감하게 경험하는 능력을 키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정운 작가님과 함께 예술작품을 직접 제작해 보고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해 보면서 아동들은 새로운 예술을 경험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고 먼저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Q3.

예술인의 역할로 기업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희락원의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심리적 공간에도 새로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정운 작가님은 다양한 조형물 설치로 희락원을 기쁘고 즐거운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렇게 이론 예술의 일상화를 통하여 아동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예술적 성장과 발달을 하였습니다.



예술인

-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나눔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좋아하는 예술을 알리고 공유하면서 기관에 소속된 아동들과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도모되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계기로 독자적인 작품 활동에 더해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 유행 기간 외부 활동이 일체 금지되었던 시설의 아동들이 인근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 개인전을 찾아 주었습니다. 전시 관람과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 6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작가 활동을 함께 하면서 진행해온 터라 더욱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바쁜 작품 활동과 병행하면서도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은 늘 즐거웠고, 예술이 일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인이 관심을 갖고 해당 사업을 경험해 보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 이번 협업 활동에서는 특히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열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이들이 가진 예술의 영역에 대한 폭을 확장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언어로 하기 힘들 때 때로는 그림으로, 움직임으로, 노래로 자신을 드러내고, 마음의 소리를 풀어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협업노트

1. 어린이 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

작년에는 시각예술에 집중하는 교육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을 경험하도록 하는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필라테스와 함께하는 미술활동, 뮤지컬, 촉감놀이와 함께하는 미술활동 등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감각이 폭넓게 발달하는데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2. 월별 복지사 예술 교육

복지사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봉사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정작 본인의 심리를 돌아보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지사님들을 월별로 아동들이 하는 예술 활동 교육을 진행하면서 창작 과정의 즐거움을 느끼고, 예술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실생활로 이어져 근무 환경 개선과 아동들과의 교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예술을 통한 공간 개선

아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통로에 소형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늘 활동하는 강당의 디스플레이를 종종 조율하면서 예술이 일상에 들어옴으로써 매일 보던 곳을 더욱 멋지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루미너시티(Luminosity) 출판사

21

- 참여예술인 이정은
- 담당자 조겸
- 협업활동 유형 홍보 및 마케팅
- 소재지 수영구



기업/기관

-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① **기업 이미지에 맞는 새로운 로고 제작**
출판사로서 필요한 이미지에 맞는 로고를 예술인과의 협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② **《모든 것은 빛난다》 전시 참여**
작품 설치 및 도록 제작에 협업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③ **아카이브 총서 2권 《오영재 연구》 감수 참여**
아카이브 총서 2권의 감수 관련 수정 및 편집 과정을 예술인과 협업하였습니다.
 - ④ **아카이브 총서 3권 《부산근대사진연구 묘박지》 출판 준비**
2023년 출판 예정인 아카이브 총서 3권 제작 과정을 예술인과 협업하였습니다.
 - ⑤ **아카이브 총서 4권 (가칭) 《부산근대사진작가 연구》**
2023년 출판 예정이며 부산의 사진작가에 관한 아카이브 연구서 제작 논의를 예술인과 협업하였습니다.

-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 전문적인 예술인께서 작업에 참여해 주심으로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특히 각종 전시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정돈된 모습으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필요하던 로고 제작을 지휘해 주셔서 기업이 목표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걸맞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협업을 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인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기업의 활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피드백이 되었습니다.

- Q3.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출판사로서 전시회 참여에서 예술인과의 협업이 가장 빛났습니다. 특히 도록 제작에서 이정은 작가님께서 디자인, 편집 등을 도맡아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또한 전시장 설치 등의 작업에도 직접 참여해 주셔서 전문적인 시각에서 작업 진행에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번 2022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같은 방향의 생각을 조율하고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시를 하는 예술가 입장에서 전시장을 바라보았다면, 이번 사업에서는 작가님들을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로서 홍보 자료를 제작해 주고, 카탈로그, 도록, 작품 설치 등 다양한 전시 관련 협업을 통해 전시장에서 제3자로서의 색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속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묘박지 전시 준비 기간 중 이승훈 작가님의 <오래 된 미래>라는 작품을 액자에 넣기 위해 액자 제작을 위한 미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애정과 어떤 전시였으면 좋겠다는 전시 방향에 대한 열정들과 이야기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작가님을 통해 나는 내 작품을 향한 시선이 어땠었던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기억에 남습니다.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짧고, 빠르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한발 한발 맞추어 가며 의미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해 보는 경험이 되었다 생각하며, 좋은 경험을 공유해 주신 루미너시티에 감사합니다.

Q4. 기업과 협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동안 개인 작업에 대한 고민들과 애증이 있어왔는데, 색다른 경험을 통해 이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출판사와의 협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역량을 키우고 제 안에 있는 가능성을 살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만족합니다.



협업노트

1. 루미너시티 로고 제작 과정

루미너시티가 가진 정체성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생각해 보기.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로고를 제작하기 위해 대표님과 작가님의 출판사 스토리 듣기. 심플하면서도 가독성 있게 제작을 하기 위해 다양한 시안을 제시. 루미너시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원과 폰트 설정. 다양한 구도 설정과 최적화된 비율을 맞추어보기.

2. 성혜인 개인전 '그림조각' 홍보물 제작 및 전시 설치

성혜인 작가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그니처 색상 정해보기. 포스터, 브로슈어, 엽서, 현수막 레이아웃 맞추어보기. 메인 작품을 중점으로, 미관화랑 전시 설치 도와드리기. 작품 배치와 작업물 설치 도와드리기.

3. 모든 것은 빛난다 도록 제작

참여 작가님 프로필 모으기, 출판작 목록 정리하기. 작가노트 수집 및 본문 자료 받기. 도록 제작 업체 찾아보기. 참여 작가님 인터뷰 자료 모으기. 60P 레이아웃 초안 제시. 수정 사항 및 피드백 받고 다시 제작해 보기

예원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2

- 참여예술인 장재희
- 담당자 황경숙
- 협업활동 유형 교육훈련
- 소재지 사상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슬기로운과 희망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예원 이용자분들과 함께 사물놀이 가락(휘모리, 별달거리 등)을 북으로 두드리며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통합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및 불안감을 해소시켜 건강한 일상생활의 영위를 도와줄 수 있으며, 또한 사회성을 키우고,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비언어적인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이용자분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사물놀이 악기(꽝과리, 장구, 북, 징)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장단을 배워보거나, 신체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손뼉 장단, 무릎장단과 입장단 하기 등)으로 사물놀이 장단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분들에게 두드리는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운 사물놀이 장단으로 이용자분들이 12월 9일 타 기관의 식전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에 참여하게 되어 이용자분들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3.

예술인의 역할로 기업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장애인분들이 사물놀이 활동을 통해 음악을 듣고 적절한 연주 활동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통합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및 불안감을 해소시켜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폐 장애인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사회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물놀이의 활동을 통해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심리적인 즐거움과 풍부한 경험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기관에서는 이용 장애인들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음악 프로그램에 아쉬움이 남아 올해도 사물놀이를 시작하여 휘모리 및 별달거리 가락으로 두드림을 통한 소통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사물놀이 악기와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예술인

-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평소 예술 활동의 대상으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활동하였다면 이번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서는 예술 향유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특수한 대상 속에서 예술의 폭넓은 역할과 예술의 무한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예술 활동으로 사물놀이를 중심으로 강좌를 진행하였는데 악기를 연주 하면서 박자를 점점 맞추어 가고 또한 음악에 맞춰 박자에 따라 연주하는 과정에서 점점 친숙해지면서 개개인이 눈을 마주 보면서 연주를 하고 연주가 끝나면 서로 수고했다는 의미의 '하이파이브' 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는데 초반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는데 예원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대상의 특징을 이해하며 나아갈 방향을 잡아 여기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 제가 하는 예술 활동의 특징이 혼자 개별 활동하는 분야가 아니라 합주 형태로 활동하게 되는데 사물악기가 하나의 소리와 최고의 연회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면 이번 협업 활동에서는 활동 초창기에는 최고의 성과를 목표로 하였으나 활동 대상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예술의 공유와 사람에 대한 공감을 중요한 활동 목표로 삼았습니다.

협업노트

1. 휘모리 가락 익히기

처음에는 북을 가지고 기본 타법을 익히고 기본 박자를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락을 접하게 하고 이후 박자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장구를 익히면서 가락 소리를 듣고 바로 따라 치는 분이 팽과리를 연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악기별로 나누어서 사물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별달거리 가락 익히기

그 이후에 휘모리 가락 계열인 별달거리 가락을 연주하게 되었고 별달거리 가락에 있는 사설을 익히고 별달거리 가락을 연주하면서 사설까지 외치게 되었습니다. 번외로 대한민국 구호인 '따뜻 따 땀땀 대! 한! 민! 국!' 까지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3. 음악 사물놀이 개발 및 연주

단순한 사물놀이의 연주가 아닌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에 맞춰 연주하는 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복잡한 가락이 아닌 단순하면서도 음악에 맞는 가락을 개발하여 장구 가락에 적용하였고 북도 마찬가지로 가락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후에 팽과리와 징까지 사물악기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4. 공연활동

공연이 11월 15일 잡혀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취소가 되었지만 이후 12월 9일 공연활동이 있습니다. 무대에 등장하여 관객에 대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음악 사물놀이 1, 2의 연주를 한 후 관객에게 인사 후 무대에서 퇴장까지 연습하면서 공연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어반브릿지

23

- 참여예술인 전미희
- 담당자 김진철
- 협업활동 유형 사회공헌활동
- 소재지 동래구



기업/기관

-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주)어반브릿지는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협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창출하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성을 살린 새로운 로컬 브랜딩으로 사람과 공간, 콘텐츠를 잇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어반브릿지는 사회주택 사업, 어반브릿지 동래 (HUG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운영,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 이벤트 기획 위탁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간의 공유와 사람을 잇고,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기획·생산하여 지역과 구성원들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 이번 〈굿모닝 예술인〉은 기업과 예술인이 협업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과 예술인 모두에게 좋은 경험과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프로젝트는 몇 달 동안 예술인과 함께 많은 교감을 나누면서 배운 것도 많고, 생각하게 된 것도 많았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어 현대 사회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본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진행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 Q3.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어반브릿지는 이번 사업 기간 동안 차(Tea) 산업 창업가 양성과정, 다기·다구 전시회 4℃, 전통 체험 힐링 티크닉(Tea+Picnic) 등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활동의 진행하는 데 있어 각 활동의 컨셉에 맞는 기획·홍보 자료 제작 및 디자인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했는데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을 꼽으라면 〈전통체험 힐링 티크닉〉 행사 관련 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행사는 많은 참여자 모집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보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대중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행사 홍보자료가 필요했는데,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단계에 있어 예술인의 내공이 더해져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업과 협업과 소통의 다양한 형태를 고민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티(tea)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프로젝트마다 기획부터 컨셉을 같이 이야기한 활동이 가장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전시, 행사 등 다양한 작업들을 기획과 컨셉을 같이 이야기하며 디자인 작업한 것이 저와 기업의 프로젝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과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Q3. 기업과 협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업과 인터뷰 과정에서 대표님과 이야기한 것들 중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정을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협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4. 기존의 예술활동과 기업과 협업활동이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하는 작업은 오롯이 혼자서 작업하는 일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고민이 혼자서 하는 일이었다면 협업 활동은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회의하는 과정이 저에게 큰 차별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효율성만 중시하는 저에게 불필요한 미팅과 회의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협업노트

1. TEA 산업 창업가 양성과정

'차(Tea) 산업 창업가 양성과정'은 부산의 차(茶) 산업 로컬 크리에이터(지역 가치 창업가) 발굴 및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차 산업 관련 전문 교육, 멘토링, 제다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의 차 산업 발전 및 TEA 로컬 크리에이터의 양성을 위한 발판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 다기·다구 전시회 4℃

'다기·다구 전시회 4℃'는 한국 차 도구를 만드는 젊은 도예가의 기획전입니다. 본 기획전은 'Tea 산업 창업가 양성과정'과 더불어 젊은 차 도구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으며, 무무요, 상명요, 정가로이, 다경요 4명의 청년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3. 전통체험 힐링 티크닉

'전통 체험 힐링 티크닉(Tea+Picnic)'은 중부산 권역의 '전통·문화' 테마 기반, 차 문화가 발달한 '차밭골' 동래구 및 금정구를 배경으로 한 유적지에서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차를 즐기는 젊은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차 문화가 발달한 동래구 및 금정구 관광지를 활용한 전통 체험을 제공하고, 야외에서 즐기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젊은 세대의 관광객을 유치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꿈터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4

- 참여예술인 정소이
- 담당자 이미숙
- 협업활동 유형 사회공헌활동
- 소재지 남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꿈터장애인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성 확립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자연과 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예술인과는 창작 도자기 수업을 진행하며 소근육 운동 및 발달과 휴에 대해 알아보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이용자들의 도자기에 대한 흥미를 돋우고 촉감 발달, 소근육 운동을 돕고 다양한 소재의 도자기 수업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Q3.

예술인과 함께 해결하고자 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기관에 도자기 수업을 진행해 오다 휴식이 이후 도자 수업을 해주실 선생님을 찾고 있었고 매칭되어 다양한 기법과 소재를 활용한 창작 도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특수교육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고민해서 저만의 커리큘럼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이용자 분들이 흠을 만지면서 좋아하고 ‘도예 좋아’ 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감동했습니다. 물론 수업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분들과의 라포 형성이 저에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에게 6개월이 짧은 여정이었고 긴 여운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많이 못 봐드린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이용자 분들이 도예수업 시간을 기다리고 만나면 반겨 주시고 라포를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친해지는 과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다양한 종류의 흠을 소개하고 만져보게 했고 흠 작업 외에 도예를 할 수 있는 기법들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협업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 했던 부분이며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재료를 준비하는 재미있는 미션이었습니다.



협업노트

창작 도자 활동

도자공예 교육으로 꿈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현장에서 이용자 분들의 개별 대상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창작 도자기 수업을 진행하며 소근육 운동 및 발달과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취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흙에 대해 알아보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용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도자기 기법을 활용해서 창작 도자 활동을 합니다.

전포종합 사회복지관

25

- 참여예술인 정승화
- 담당자 정지윤
- 협업활동 유형 사회공헌활동
- 소재지 부산진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부산진구 전포 1동에 위치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전포 1동은 총 9개의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의 유동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전포 1동의 다양한 공동체와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성북초등학교 후문 담장에 벽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성북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색채 교육, 스텐실 벽화 도안을 직접 그리는 미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벽화사업 TF팀(전포동 내 11개의 단체 참여), 성북초등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벽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벽화 사업에 참여한 학생 및 보호자는 “벽화 길 오를 한 번 더 보니 골목이 환해져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반 애들과 나오셔서 벽화 보면서 꽃 이름 알려주시고 구경하는 수업을 진행 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애들 모습에 뿌듯했습니다.”라고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술인과의 협업 활동으로 아동·청소년이 마을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Q3.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협업 예술인과 전포1동의 다양한 단체들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약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 부산에 술인파견지원사업 협업활동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곳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다는 것을 직접 느낀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습니다.



예술인

-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벽화를 그리기 전 약 2달간 성북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색, 기법, 벽화 도안 그리기 등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 중 어린이들의 다양한 상상력과 그림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의 새로운 시각들이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초등학교 외벽에 벽화를 그리기 전 벽을 보수 및 바인더, 배경색을 칠하는 과정에서 지나가시던 학부모님들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시는 것과 주민들이 격려와 협조해 주시던 모습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 6개월간의 활동 기간이 엄청 빨리 갔습니다. 2개월간의 수업 1개월 외벽 보수 3개월 벽화 및 마무리 작업등 200m 정도의 거리 외벽인데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과 마을 청년회 학부모회 등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과 많이 정들었고 한 번씩 벽화 한 거리를 지나갈 때는 같이 작업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벽화가 되고 뿌듯해하는 모습과 수업의 일환으로 벽화를 보러 오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 성북초등학교 외벽에 벽화가 들어가는 만큼 아이들의 그림으로 벽화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부분과 벽화를 통해 거리의 어두운 분위기를 벽화를 통해 밝은 분위기로 바꾸는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협업노트

1. 성북초등학교 벽화사업 TF팀 ‘꿈담’ 구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위해 성북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학부모회, 전포1동 마을 교육자치회, 주민공동체 ‘담담’, 마을교육공동체 ‘노크’, 전포1동 주민센터, 전포1동 청년회, 전포사이길 유니온, 부산진구전포청소년센터, 부산진구진로교육지원센터, 행복한공부방,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굿모닝 예술인 정승화 작가가 벽화사업 TF팀인 ‘꿈담’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꿈담’에서 회의를 통하여 사업 진행 일정 및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성북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술교육 실시

성북초등학교 재학생 21명을 대상으로 6~8월까지 색채 교육, 스텐실 작업, 조별 벽화 도안 그리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등하교 하면서 다니는 골목에 성북초등학교 재학생들의 그림이 그려지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학교에서 벽화 주제를 선정하고, 미술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주제에 맞춰 벽화 도안을 만들어갔습니다.

3. ‘꿈담’과 성북초등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벽화 진행

벽화를 그리기 전 사전 작업(청소, 페티, 배경색 도포) 및 사후 작업(스텐실, 코팅제 도포)은 학생들이 진행하기에 어려워 ‘꿈담’에서 전적으로 도맡아 작업을 진행해 주었고, 벽화는 미술교육에 참여한 학생 및 보호자가 함께 작업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동네를 밝고 환하게 만들어준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학교 주변이 더 밝아진 거 같아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즐거울 것 같아요. 칙칙하던 골목에 빛이 나네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의미 있는 벽화 작업이었습니다.



만덕종합 사회복지관

26

- 참여예술인 정혜원
- 담당자 조지훈
- 협업활동 유형 복리후생
- 소재지 복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예술, 만덕에 스며들다.]

- 제1장. 움직임과 음악으로 협업하기

기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무용과 음악 분야의 협업으로 자유로운 움직임과 몸짓 상황에 맞는 음악이 어우러져 내재된 감정을 표현하고 개인의 심리치유와 공동체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커리큘럼을 기획하여 진행했습니다.

- 제2장. 사회복지사 문화예술 매개자 되기

사회복지사 그룹과 함께 마음건강 및 소진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진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 확산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매개자가 되어 주민공동체와 예술인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제3장. 주민공동체로 확대하기

사회복지사가 이어주는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과 더불어 개별 공동체 고유 활동 동기 부여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사회복지와 예술인(문화예술)이 협업하여 주민 돌봄과 문화예술을 잇는 마중물 사업이 되어 새로운 문화예술 돌봄 모델을 제시하고 문화예술로 주민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Q3.

기업만의 특별한 점,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본 기관은 문화예술교육 영상 제작, 문화예술활동 기획 등 예술인들과 다양한 문화예술 협업 활동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리치유,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마을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가 제4차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2022년 예비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이에 따라 만덕종합사회복지관도 문화, 예술과 연계하여 문화 돌봄을 전 사업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지와 예술이 융합되어 마을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저는 이번 사업에서 사회복지사분들, 주민분들과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총 6차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문화예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게 되었고 활동 진행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예술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문화예술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의 후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힐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후기와 일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후기를 보며 활동을 하면서 행복하게 웃으시는 참여자분들이 생각나며 다들 너무 바쁜 일상에 지쳐있는 삶이 안타까웠고 함께했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 6개월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고 약간의 아쉬움도 남았지만 재미있게 했던 것 같고 조금 더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어 뿌듯합니다.
- Q4. N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셨는데, 올해만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작년에는 협력형으로 여러 명의 예술가 선생님들과 함께했었는데 올해는 개인형으로 혼자 작업하니까 개인의 역량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저의 성장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어 좋았습니다.



협업노트

1. 사회복지사 인터뷰

사회복지사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10명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사회복지사 힐링을 위한 총 3회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2. 예술, 만덕에 스며들다.

사회복지사를 위해 기획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좋았던 활동들을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총 3회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3. 유튜브 영상제작

만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함께한 활동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복지관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이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분들이 예술인이 없어도 예술과 주민들을 이어주는 매개자가 되어 활력이 넘치는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조은학교

27

- 참여예술인 정호윤
- 담당자 김길부
- 협업활동 유형 사회공헌활동
- 소재지 중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저희 기업과 예술인은 학교 부적응 및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간단한 영상물이나 사진을 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유튜브에 탑재하거나 공모전에 출품하기도 하였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학생들의 자유로운 주제 선택과 공모전 출품을 목표로 협업 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근 부산 시립시민도서관에서 주최하는 학생 독서활동 공모전에서 장려상에 입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Q3.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함께 다도 체험을 하고 그 장소에서 사진 촬영에 대해 배우고 실습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부산 시립시민도서관에서 주최하는 학생 독서활동 공모전에서 장려상에 입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회성과 예술세계의 시선이 확장되었습니다. 작가는 보통 자신의 분야에서만 일하기 마련인데 다양한 직군에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확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작가의 창작 세계를 확장 시키고 작가의 사회적 소통 기능과 경제적 확장 기능을 함께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외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예술의 기능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참 신선한 고민이었습니다. 처음 학생들은 마음을 닫고 소극적인 태도로 수업과 활동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자 점차적으로 마음을 열고 자신이 찍은 사진들과 영상물 또는 생각들을 조금씩 표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속에 작은 씨앗 하나 심어준 기분이 들어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키워 갈 나무들이 어떤 색을 지닌 나무일지 참 궁금해집니다.

Q3. 기존의 예술활동과 기업과 협업활동이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존의 작업은 작가인 내가 주체가 되어 진행했다면 이번 협업 활동은 기업인 학교의 입장과 학생의 입장을 동시에 생각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많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개인 작업보다 많은 생각을 해야 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술의 기능적인 한 측면인 소통이라는 코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어 좋았습니다.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번 협업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만들 기획을 발표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진을 찍고 영상물을 만들고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 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학생이 직접 만드는 미디어 콘텐츠를 꼭 만들고자 했습니다. 파견된 작가가 콘텐츠를 만들고 그 구성안에서 학생들에게 작은 역할을 맡기는 것보다 직접 학생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이 훨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기억은 미래를 만듭니다. 학생들이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6개월 동안의 기억들이 씨앗이 되어 먼 훗날 멋진 예술가가 탄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협업노트

1. 21세기의 미디어 교육

21세기는 미디어 세상입니다. 유튜브 콘텐츠와 SNS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세상입니다. 맛집의 주방장의 역할은 요리 실력보다 인스타 능력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학생들에게 21세기에 소통 도구 중 중심이 될 유튜브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대해 이야기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2. 사진으로 기본 표현하기

전교생 중 미디어 제작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방송반을 만들었습니다. 방송반 학생들과 외부에 나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주고 발표 능력 및 자신을 가볍게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키워가고 싶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부산시립도서관에서 주최한 독서 사진 공모전에서 방송반 학생 한 명이 부산시립도서관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 미디어 콘텐츠 만들기

학생들이 직접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개성과 시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이 무엇인지 타인과의 소통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공동체 지구인

28

- 참여예술인 주혜자
- 담당자 심종석
- 협업활동 유형 사회공헌활동
- 소재지 복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공연장을 중심으로 마을의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동아리 및 마을 공동체 DB 조사와 연기 워크숍, 낭독극 공연과 공연장의 기획력 및 장소 장비를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공연장의 자체적인 기획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 아이디어 및 홍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북구지역대표 공연장'으로서 자리매김 하고자 하였습니다.

Q3. 예술인과 함께 해결하고자 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극장에 공연 분야 전문예술인이 함께 활동하며 공연장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공연장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단체 DB 구성은 향후 기관이 문화복합건물을 운영 관리하는데 여러 모로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예술인

-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개인작업에서 한발 나아가 다양한 아티스트와 소통하고,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예술가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 및 기관의 입장에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대중적인 관점을 확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기관이 진행하는 여러 문화행사에 참여하며, 생활문화 커뮤니티와 만나는 자리가 많아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시민연극동아리와 전통 국악원의 중년층 생활문화 예술가들과 코로나 전후의 예술과 지역 예술가로서의 고충을 나누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추어와 전문예술인의 경계를 떠나 현장의 공기를 나누며 완성해가는 공연예술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 첫 도전이기에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해당기관과 목표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시도한 다양한 실험들이 양쪽 모두에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작업으로 연결되어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용역이나 월급을 주는 개념의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기업과 예술인이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한다면 이번 작업을 거울삼아 기관과 더욱 유연하게 소통하며 빠르고 알찬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서 예술가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난감한 지점은 본인의 활동 장르나 포지션과 무관하게 무조건 '기획력'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기업 기관 역시 그 부분에서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기획자이자 연출가, 작가로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해온 경력이 있으나 일단 본 사업에서는 리더 예술인과 예술인들의 매칭이 아닌 기업과 1인 아티스트의 매칭이므로 무엇보다 먼저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펼쳐 기관의 난제(공간인지도 향상)를 해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협업노트

1. 시민연극동아리 연기 워크숍

앞서 공연장이 위치한 마을의 문화예술공동체 및 동아리를 조사하고, 주민들이 진행하는 시민연극 만들기에서 연기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시민연극동아리를 구성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상담 요청 및 작품 의뢰 등을 받아 향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 중입니다.

2.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

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한 타 공연장 사례를 조사하고, 지역복지관 등 홍보 DB를 만들었으며, 공연장의 하우스 멘트 녹음을 비롯해 공연장 대관 및 자체 프로그램 진행에 기획, 무대감독 등으로 참여하였습니다.

3. 지역민을 위한 명작낭독극 <미스마플>

지역민이 비교적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명작 추리소설을 극화한 낭독극 <미스 마플>을 선보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을 운영단체와 입주단체, 해당 구청이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로 관객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대중적인 작품으로 지역의 다양한 관객층에 맞춤 홍보하여 공연장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사)부산어린이어깨동무

29

- 참여예술인 차성욱
- 담당자 황예지, 김인정, 차문주
- 협업활동 유형 홍보 및 마케팅
- 소재지 중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제13회 부산평화영화제’의 컨셉 이미지를 만들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부산평화영화제 로고, 굿즈 등 다방면에서 이미지를 구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의 소개 리플릿과 기념품을 디자인 했고, 지역 주민 대상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예술인과 협업하여 부산평화영화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평화 캠페인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각 이미지를 원했습니다. 예술인은 부산평화영화제를 상징하는 로고를 제작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었습니다. 평화 캠페인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의 슬로건에 부합하는 컨셉 이미지를 제작하였고, 컨셉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우리 단체가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위해 그림책 작가이기도 한 예술인은 도서관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추진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보다 도서관을 친근하게 여기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끔 작은 도서관의 소개 리플릿과 굿즈를 디자인했습니다.

Q3. 예술인의 역할로 기업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술인과의 협업으로 얻는 시너지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예술인의 시각으로 탄생한 작품으로 단체의 사업이 색을 입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술인과의 협업 이후 시각 이미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지역의 작가와 협업하는 것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번 협업의 메인 작업인 부산평화영화제(작업 내용: 로고, 메인 포스터, 인스타 광고 템플릿, 컵홀더, 엽서, 스티커, 양말, 금속 배지, 전단, 가로 등 현수기, 초청장, 티켓, 각종 현수막) 작업은 다른 영화제와 차별화된 이미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톤 앤 매너를 확정해 브랜딩에 집중했습니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서 미술감독으로 진행했던 일과 동일했습니다. 이번 협업으로 작업물을 다양한 아웃풋으로 만들 수 있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글마루 도서관 리플릿 작업과 보수동 도서관 캐릭터 작업은 그림 작업의 비중이 컸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도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캐릭터를 제작했습니다. 특별히 리플릿 제작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도서관과 계속 소통하며 이미지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 예술가로 보통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소통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영화제 개막식이 기억에 남습니다. 수개월 동안 진행했던 작업물을 배치하고 새로운 로고가 찍혀있는 티셔츠를 갈아입고, 곳곳에 가격을 매기고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길거리엔 가로등 현수막이 날리고 파트너십 카페는 영화제 컵홀더를 사용했습니다. 부산평화영화제의 꼭 맞는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었던 마음으로 작업한 모든 작업물이 조화롭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산평화영화제를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3. 기업과 협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업과의 협업은 경제적인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작업 역량의 강화였습니다. 최초 기업 선정에서 부산어린이어깨동무와 협업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다른 영화제에서 쌓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제에서 일할 예술인을 찾는 기관에 유익할 것이란 판단이었습니다. 소규모 영화제라도 하나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항목별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많습니다. 영화제 일을 한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지만 보람도 매우 큼니다.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번 부산평화영화제는 벌써 13회째입니다. 하지만 아직 영화제 로고도 없었고, 대표 컬러도 없어서 아카이빙 자료들의 톤앤매너가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소규모 영화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영화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디자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아웃풋을 얻었고, 업이 끝난 후에도 통일성 있는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정리하면 영화제 인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협업노트

1. 제13회 부산평화영화제 메인 컨셉 이미지 구현 및 홍보물 디자인

부산평화영화제 포스터 및 각종 홍보물의 기초가 되는 메인 컨셉 이미지를 올해의 슬로건에 맞게 구현했습니다. 컨셉 이미지에 따라 포스터, 전단, 초청장, 티켓, 현수막, 굿즈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굿즈는 소지하는 것만으로 평화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기획하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공개하였으며, 부산평화영화제를 부산뿐 아니라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행사를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2. 부산평화영화제 로고 제작

부산평화영화제는 13회째를 맞이했으나 매년 로고의 디자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 예술인은 부산의 바다와 영화, 평화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조합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할 로고를 제작했습니다.

3. 작은도서관 홍보물 제작 및 작가와의 만남 추진

글마루작은도서관은 개관 이래로 지금까지 10여 년간 소개 리플렛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바뀐 정기 프로그램과 도서관의 증별 안내를 새로운 리플렛에 담아 이를 라-디자인했습니다.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기념품을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협업 예술인이 그림책 작가인 점을 고려하여, 보수동 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에서 어린이와 가족 대상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했으며 이용자가 그림책을 보다 잘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30

- 참여예술인 최용혁
- 담당자 강영기
- 협업활동 유형 교육훈련
- 소재지 부산진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우리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일자리로, '극단 하이파이브 친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극단의 활발한 공연 활동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술인과 함께 새로운 뮤지컬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신규 작품 제작 이외에도, 예술인과의 협업 활동은 우리 극단이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극단 운영에 대한 자문에서부터 발달장애인 배우들이 뮤지컬 전문 인력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도 방안 마련 등 우리는 협업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Q3. 예술인과 함께 해결하고자 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예술인과 함께 준비 중인 신규 뮤지컬 작품은 온전히 발달장애인 배우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배우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춤과 노래, 연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오던 비장애인이 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는 다른 특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술인

-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우선 정기적인 고정 수업이 생긴다는 점이 예술인들에게 가뭄에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영위하는 데 시간적, 정서적 여유를 만들어주고 이 여유가 새로운 창작활동을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그리고 평소에 늘 해오던 예술을 창작하는 행위에서 좀 벗어나 새로운 작업 방식이 또 다른 영감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거의 매주 이루어졌던 발달장애 청년들과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하이파이브 친구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눌 때 짧은 순간 이루어지던 교감들이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센터분들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삶과 생각을 깊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 본명 시작할 때는 긴 일정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되고 어느새 끝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니 정말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쉬운 작업은 아니겠거니 했지만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음을 또다시 한 번 느끼게 되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이어오는 작업은 꼭 마무리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센터 모든 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느껴지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 장애/비장애인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예술이 뿌리가 되어 시민의 삶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여 발달장애 청년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든 작품을 쓰고 발표하여 시민들이 발달장애인의 삶과 그 주변인들의 삶까지도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닌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개인적인 노력이 다분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협업노트

1. 하이파이브 친구들 레퍼토리 개발 및 단원 역량 강화

기존에 제작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던 극단 하이파이브 친구들의 작품 〈우리, 함께라면〉 공연을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기 위하여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단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기, 음악, 안무 분야를 각 강사들과 상의하여 프로그램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2. 하이파이브 친구들만의 콘텐츠 개발

발달장애 청년들의 뮤지컬 극단 〈하이파이브 친구들〉만의 이야기를 담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협업하였습니다. 단원들의 역량을 파악함은 물론 그들의 내밀한 이야기까지도 들여다보며 ‘지금, 여기’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하여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신작 창작 작업에 착수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모퉁이 극장

31

- 참여예술인 하주은
- 담당자 김가이
- 협업활동 유형 제품기획
- 소재지 중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모퉁이극장에서 진행한 <쓸데(는)없는 씨네클럽>, <제2회 민주시민영화제>, <시네마에세이> 등의 포스터 홍보물 디자인을 하고, <제8회 관객영화제> 홍보물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기존 상업 디자이너와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표현하여 신선한 반응이었고 특히 청년들에게 호응이 좋았어요. 디자인 외에도 홍보 매체나 홍보물에 대한 고민도 함께했구요. 모퉁이극장의 활동 취지와 방향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Q3.

기업만의 특별한 점,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모퉁이극장은 올해 1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영화관으로 개관했습니다. 관객 문화운동을 하며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 활동할 때와 달리 남포동 영화관과 영화 굿즈샵을 운영하며 시민 관객들, 소비자들을 더욱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화관 관람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관객 문화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영화관이 되길 바랍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첫째는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개인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하였고요. 둘째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른 기관 과도 인연이 닿아 외주 작업을 맡거나 잡 오퍼를 받기도 하였고, 셋째로는 극장계의 대안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모퉁이극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면밀히 살펴보게 된 과정을 통해 영화계에 대한 견문이 넓어졌습니다. 매 영화제마다 실시된 관객 토크에도 참여를 하면서 미술 비전공자의 다양한 시선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각기 다른 세 번의 영화제에 세 명의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관객 토크에 참여하였는데 외국인에게 한국인에게도 특별한 공간과 경험을 동시에 소개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고 세 편의 영화 모두 각기 다른 장르의 작품성 있는 영화라 그 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시네마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본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 '페미니스트 리포스트'를 보고 관객 토크 때 관객들이 개인의 경험을 나눴던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영화제 관객 토크 때는 사적인 영역을 많이 드러내진 않았거든요.



Q3. 기업과 협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매칭 기관, 기업들의 목록을 살피며 기업이 예술인과 하고자 하는 활동이 나의 작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내가 그 요구를 충족할 능력에 부합하는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집과 기관이 위치한 접근성 그리고 해당 기관과 매칭됨으로 내 이력에 도움이 되는가 등을 따져보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모퉁이극장은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이었습니다.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영상, 사진, 회화를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디자인, 통역, 촬영 및 영상 편집 등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기업에서 일하며 생산해 내는 작업물들은 보통 수익을 내는 목적을 1순위로 제작되며 홍보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허나 예술 관련 디자인물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수익을 내는 것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들의 가치를 지키며 창작자의 창작 목적을 이해한 상태에서 공간 운영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협업노트

1. 모퉁이극장 사인물 디자인

가격 안내표, SNS 홍보물 양식 디자인을 제작함으로 모퉁이극장을 이용하는 관람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공지들이 더 직관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었고 기관에서 일관성 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기관의 이미지를 가꾸고자 하는데 해당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 쓸데(는)없는 씨네클럽

언제부터 영화를 보고 글을 쓰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쓸데 없는' 짓이 되었는지 해당 홍보물들을 제작하며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전공자들은 쉽게 예술 하는 사람들을 두고 '쓸데 없는' 노작질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쁜 현대 사회에 거창한 인문학적 견해가 아니더라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 더 많은 시민들이 해당 행사에 참여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3. 제2회 민주시민영화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영화들은 아니지만 반드시 회자되어야 할, 또는 누군가는 극장에서 볼 수 있길 기다리는 대형 상업 영화관에서는 상영되지 않는 작품들로 구성된 민주시민영화제가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홍보를 하는 것이 까다로웠지만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으면서 이목을 끄는 홍보물을 만드는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 현장 데코레이션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은 1년 중 시설 내부에 위치한 굿즈 샵 금지옥엽이 가장 성수기를 맞이하는 시즌이었습니다. 영화 애호가들이 부국제를 감상하러 부산에 방문한 참에 여러 관련 스팟들을 함께 방문하기 때문에 내부 데코를 통해 포토존 내지 수익에 도움이 되고자 했고 기관 대표님이 원하시던 시민들이 감상을 나눌 수 있는 구역도 함께 조성하였습니다.



5. 시네마에세이

이제까지 참여한 영화제 중에는 세 편의 상영작 간의 연결성은 가장 없지만 가장 대중적인 영화들로 구성된 영화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부국제 기간과도 가까워 영화인 및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작업하였습니다.



6. 제8회 관객영화제

현재 아트디렉터로 이벤트 메뉴에 디스플레이 될 현장 구성을 돕고 관련 홍보물들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주)호밀밭

32

- 참여예술인 흥석진 • 담당자 김태희
- 협업활동 유형 홍보 및 마케팅 • 소재지 수영구



기업/기관

Q1.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주)호밀밭은 도서출판, 교육, 미디어 콘텐츠 제작, 문화기획, 인문/문화 학술연구, 아카이빙 등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합 콘텐츠 회사입니다.

그동안 발간한 출판 콘텐츠(지식재산:IP) 및 저자 풀을 활용하여 파견 예술인과 함께 2차저작물 창작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호밀밭 출간 도서 저자들과의 인터뷰 〈책 농부 인터뷰〉 시리즈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공감각적 책 읽기 경험 〈감각적 책 읽기〉입니다. 책을 매개체로 인간의 오감(청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을 자극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발굴하고 다양한 독서 방식을 제안합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뉴 미디어 기반의 새로운 감수성에 소구하기 위한 영상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호밀밭 저자들의 인터뷰 시리즈 〈책 농부 인터뷰〉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매개한 〈감각적 책 읽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 중입니다.

파견예술인이 당사가 보유한 원저작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하고 제작될 수 있는 것에 매우 고무적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장르의 예술 인들과 협업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천인 독자상 대상 수상작 도서인 〈살아남은 형제들〉의 북 트레 일러를 협업 및 제작해 〈2022 광주 도서전〉에서 송출한 후 성황리에 막을 내렸고, 주기적으로 진행한 예술인의 〈기업 내부 영상 교육〉은 내부 직원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Q3.

기업만의 특별한 점,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주)호밀밭은 매년 약 30여 종의 도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출판하고 있으며, 그동안 펴낸 거의 모든 단행본이 다양한 기관의 우수도서 및 추천 도서로 선정되어 기획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콘텐츠, 문화기획/아카이브, 미디어/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며, 종합 콘텐츠 회사로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예술인

-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같이 기획을 하고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기업 측 요구 사항을 고려해 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형제 복지원을 다룬 <살아남은 형제들>의 저자 인터뷰가 인상에 깊었습니다. 저자분의 인터뷰 영상을 찍었는데 직접 저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Q3. 기존의 예술활동과 기업과 협업활동이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예술 활동은 개인의 창의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라면 기업과의 협업 활동은 같이 생각하고 기획하여 작가와 기업이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또한 기업에게 어떤 차원에서든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에 효용성이 들어가는 것이 다른 개인적인 작업과는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 그리고 개인적인 작업 방식은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쳐 천천히 작업을 진화시켜 나가는 것인데, 협업은 미리 청사진을 그리고 계획을 잡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었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 영상과 사운드를 이용해서 독서의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각, 청각, 및 촉각들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독서의 경험을 확장하려는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자에서 영상으로 호밀밭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구상하였습니다.



협업노트

1. 책농부 인터뷰 시리즈

호밀밭 <책농부 인터뷰> 영상 제작 <Book Farmer Interview>

- 호밀밭에서 책을 낸 저자들의 인터뷰 시리즈
- 로고를 만들고 브랜딩을 하여 시리즈물로 제작한다.
- 작가들이 온라인 매체에서 독자들과 거리감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영상물을 만든다.

2. 감각적 책읽기, Sensual Reading

- 책 일기와 오감을 결합한 공감각적 책 읽기 경험
- 책을 매개로하는 총체적 경험을 독자들과 함께 한다.
 - a. 시각: 영화, 사진, 그림 + 책
 - b. 청각: 저자 육성, 음악, 소리 + 책
 - c. 촉각: 맨발 걷기, 만들기, 족욕, 네일, 안마 + 책
 - d. 후각: 아로마 세로피 + 책
 - e. 미각: 음식, 술 + 책
- 2개 이상의 공감각 책 읽기
 - a. 무용 + 책
 - b. 여행 + 책
 - c. 파인 다이닝 + 책

3. 호밀밭 북 트레일러 만들기

- <살아남은 형제들> 북 트레일러 제작
- 온라인 홍보를 위한 영상물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북 트레일러를 제작한다.
- 책의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어 온라인에 배포한다.

해운대 문화회관

33

- 참여예술인 우혜린
- 담당자 이재철
- 협업활동 유형 교육훈련
- 소재지 해운대구





공연장

Q1. 기업의 간단한 소개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해운대문화회관은 해운대 신시가지 작동에 위치한 해운대구 소속의 공연장입니다. 458석 공연장 해운홀과 130석 다목적홀 고운홀 외 전시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을 진행하는 해운대구민의 문화공간입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다양한 기획공연을 통해 셋업부터 메모리 등까지 공연의 전반적인 과정에 예술인과 협업 활동을 진행하면서 예술인은 기술을 습득하고 기관은 예술직무 영역개발 및 예술적인 역량 강화를 추구했습니다. 예술인과의 협업으로 공연장의 무대조명, 공연 업무에 실질적인 투입이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Q3. 함께한 예술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으신가요?

6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해운대문화회관에서의 경험을 시작으로 항상 배우는 태도로 성장해서 무대조명 업무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항상 안전을 기본으로 작업하는 전문 인력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자주 봅시다.

예술인

-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공연장에 상주하며 공연장 관련 업무를 경험하고 숙달하는 것을 통해 무대 조명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공연장 상주 인력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참여했고 그 결과 공연장 관리자의 시선을 이해하며 다양한 작품의 조명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 지난 10월 진행된 해운대문화회관 기획공연 해운대 재즈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셋업과 공연, 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었고, 공연을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명기기를 어떻게 운용할지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Q3. 기업과 협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2021년에도 해운대문화회관과 협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협업 과정에서 해운대문화회관의 조명감독님께 무대조명감독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이 작업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실무자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해운대문화회관과의 협업을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 협업이라는 말에 맞게 내가 도움받는 만큼 기관에도 도움이 되자는 목표를 갖고 사업에 참여했고 그 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경험했던 해운대문화회관의 무대조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공연에 참여하며 공연을 직접 진행했고, 대관공연 시 공연장 관리자의 시선으로 업무에 임하며 그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협업노트

1. 조명콘솔운용 실무

조명콘솔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것은 무대조명 업무에 필수적입니다. 공연 진행을 위해 조명기기를 세팅하는 것 이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구성하고 다양한 조명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명콘솔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콘솔 업데이트와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접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명콘솔 운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 공연장 무대점검 참여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작업환경이 필수적입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운대문화회관은 수시로 공연장의 조명기기, 케이블, 조명기 악세사리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케이블 제작, 수리방법을 이해, 숙달하기 위해 예술인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3. 공연 참여, 진행

이론과 연습 과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연에 직접 참여하고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실무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연을 위한 스태프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명 디자인, 셋업, 포커싱 및 메모리, 공연과 철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부산 문화회관

34

- 참여예술인 양유진
- 담당자 김영환
- 협업활동 유형 교육훈련
- 소재지 남구





기업/기관

Q1. 기업의 간단한 소개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부산문화회관은 1988년 대극장 준공을 시작으로 개관을 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으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부산 시민의 문화향유의 기회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예술인과의 협업 활동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무대 인원의 증원을 통한 안전한 공연 진행과 공연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있는 공연장에서는 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술인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공연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통해 공연의 질도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Q3. 함께한 예술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으신가요?

6개월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 하면 짧은 시간인데, 예술인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 배우고 느꼈던 시간이 예술인분들이 원하는 것에 더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무대감독이라는 길이 문을 찾기도 그 문에 들어서기도 쉽지 않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꿈에 한 발자국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배워 시작하는 것이 꿈이었다면, 지금은 버티고 살아 남아 제 몫을 온전히 해내는 사람이 되어 언젠가 함께 근무했던 감독들과 다시 일해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무용 공연에 투입되었을 때가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공연과 공연 사이 사회자가 멘트를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무대 뒤편은 일본일초가 아까워 누구 하나 게으른 사람 없이 시간과 무대 전환에 쫓겼습니다. 무용 매트로 무대를 준비하고 정성스레 깔았던 매트를 다시 뜯어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장정 3명은 달려들어야 들 수 있는 돌 무더기 세트가 무거운 줄도 모르고 나르고, 서로 부딪혀 생긴 돌가루에 바닥을 수없이 닦고 검은 작업복이 매번 하얗게 물드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것보단 시간 안에 해내지 못해 누가 될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성공적으로 두 번의 공연을 잘 마무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 '나는 몸이 고되지만 그만큼 배워 얻을 것이 많은 공연을 좋아하는구나', '무용이라는 것이 무대, 음향, 조명 어느 것 하나 쉽게 갈 수 없는 공연이다. 내가 무대 감독이 되었을 때 신경 써야 할 디테일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 내가 참 재미있어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 자체가 좋아서가 아닌 무대 뒤편에서 느끼는 공연의 현장감과 생기가 좋아 시작한 일이라 어떤 장르의 공연을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항상 곤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답이 되어주는 공연이어서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끝은 성큼 다가왔고 돌아보면 수많은 배움과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협업 초반에는 배운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저 스스로에 대한 자신타 바닥을 쳤습니다. 무대 바닥에 발을 붙이고 서있기도 힘듦 만큼 창피하고 두려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너무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의 협업이 끝나가는 이제는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그리움이 앞서는 공간이라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더 함께하지 못해 속상하고 혼자 꾸려가야 할 앞으로의 날이 걱정이 되지만 가르쳐주신 많은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보려고 합니다. 뒤돌아 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함께해 주신 부산문화회관 무대기술팀 감독님들께 감사드립니다.

Q4. 이번 협업활동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작업자와 공연자의 안전입니다. 공연장은 큰 시설물들, 세트들, 위험한 장비들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바쁘게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극장 무대감독은 극장을 이용하는 모든 인원을 통솔하고 안내하는 역할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고 없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게 가르침을 주신 감독님들께서는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안전이셨고, 저도 그 가르침대로 협업 활동에서도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협업노트

1. 안전한 공연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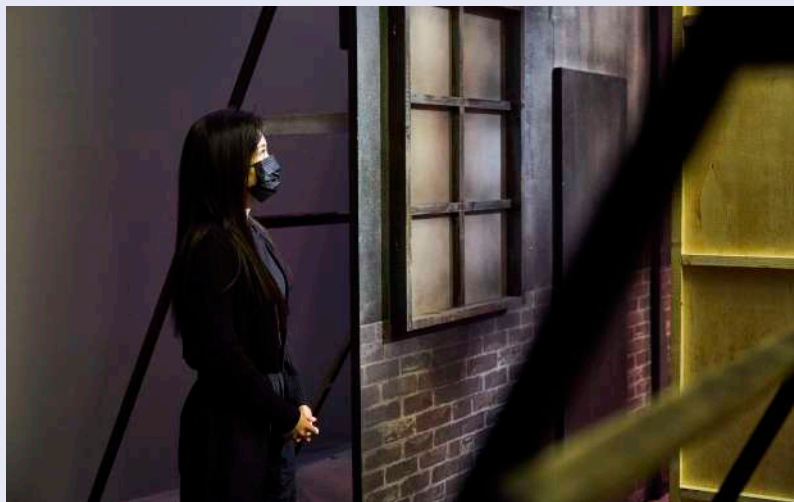
공연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많고 규모가 클수록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 특별히 그 점에 유의하여 협업 활동을 하였습니다. 행복한 여가,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선 안전이 보장되고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극장 무대감독은 극장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작업자도 공연자도 관객들도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다양한 예술 공연

시민들이 보다 쉽게, 보다 가깝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케스트라, 무용, 연극, 뮤지컬, 오페라, 미술 전시 등 수많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많은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좋은 공연들을 접하고 공유하고 생각들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의사소통의 장

무대감독은 예술과 기술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적 표현을 무대에 실체화할 수 있도록 기술 파트와 소통하고, 기술적인 가능성이나 한계를 연출과 예술 감독에게 안내합니다. 각 파트에 필요한 부분이나 소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전체를 총괄하여 조율하는 무대감독의 역할이 크게 도드라집니다. 그 어떤 파트의 감독보다도 공연의 모든 것을 제대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대감독이 그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보다 완성도 높은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문화회관

34

- 참여예술인 허훈
- 담당자 김영환
- 협업활동 유형 교육훈련
- 소재지 남구





공연장

Q1. 기업의 간단한 소개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부산문화회관은 1988년 대극장 준공을 시작으로 개관을 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으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부산 시민의 문화향유의 기회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성과를 얻으셨나요?

예술인과의 협업 활동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무대 인원의 증원을 통한 안전한 공연 진행과 공연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있는 공연장에서는 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술인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공연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통해 공연의 질도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Q3. 함께한 예술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으신가요?

6개월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 하면 짧은 시간인데, 예술인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 배우고 느꼈던 시간이 예술인분들이 원하는 것에 더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예술인

Q1.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가로서 본인의 활동에 변화나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인과 협업활동을 하며,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생각의 발상이 나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2.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부산문화회관 기획으로 합창단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 감독님들과 함께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이후에도 한 번 더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3.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6월 1일 처음 부산문화회관에 출근했던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6개월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잘 대해주시는 부산문화회관 감독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에게 부산문화회관의 6개월은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Q4. N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셨는데, 올해만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2021년에도 지금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공연장에 아무 것도 모르던 시기라 실질적인 업무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사업을 계기로 계속 무대 일을 할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올해의 사업에서는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업노트

1. 부산시립합창단 2022 Summer Fantasy<시간(時間)Ⅱ>

부산시립합창단 창립 50주년 기념 공연입니다. 제가 부산문화회관에 와서 처음으로 참여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이었습니다. 직접 무대장치를 설치하고 무대전환을 책임지고 진행했던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의 안전을 위해 무대감독님과 많은 무대 출연진들과의 소통이 필요했던 공연이었습니다.

2. 소프라노 김소율 독창회

제가 처음으로 부산문화회관에서 무대감독으로서 공연을 진행했던 공연입니다. 리허설을 하며 김소율 소프라노님, 조명감독님, 음향감독님과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공연입니다. 리허설을 통해 전환을 정리하고 공연 중 조명감독님, 음향감독님의 소통을 통해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공연입니다.

3. 김화정 독창회

부산문화회관에서 두 번째로 무대감독으로써 진행했던 공연입니다. 김화정 테너님이 최대한 편하게 리허설과 공연에 임할 수 있도록 조명감독님, 음향감독님과 많은 소통을 했던 공연이었습니다.

06

역량강화 프로그램

역량강화프로그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례 제시를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신고 방법 안내를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인식변화를 위한 토론을 실시하고 Me too 이후 불거진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례를 알리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예방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일 시	2022.7.21.(목) / 7.28.(목) / 8.18.(목)
장 소	부산문화재단 3층, 배움방 2
강 사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한 전문강사
방 식	밀도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1회 최대 참여 인원 20명으로 제한하여 토론행식의 소규모 대면교육 진행
내 용	- 성희롱, 성폭력의 정의 -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사례 소개 - 성희롱, 성폭력 대응 및 예방대책

저작권 교육

약정기간 동안 예술인을 통해 산출된 창작물의 전용권 및 향후 저작권 귀속 여부 등 저작권 및 전용권에 관한 상담 제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약정기간 이후 사용되는 작품 차용에 관한 전용권 분쟁 방지를 위해 예술인뿐만 아니라 참여기업·기관(공연장)이 함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일 시	2022.8.18.(목) / 8.25.(목)
장 소	부산문화재단 3층, 배움방 2
강 사	법무법인 지승 문일환 대표변호사
방 식	밀도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1회 최대 참여 인원 20명으로 제한하여 토론행식의 소규모 대면교육 진행
내 용	-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의 개념 - 문화예술계 저작권 분쟁사례 및 해결방안 - 문화예술계 계약 및 장르별 표준계약서 작성법

역량강화 워크숍 & 아트투어

적극적인 예술인 복지 실현과 사업 참여 예술인의 건강한 협업 구조 형성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네트워킹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성 1918에서 사업 참여 예술인의 협업활동 및 사업결과를 공유하였고, 부산 원도심에서 문화예술 관련 장소를 방문하는 스토리텔링 아트투어를 진행함으로써 부산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창작활동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 시 2022.11.2.(수) / 11.4.(금) / 11.10.(목)

장 소 부산 원도심 일대

방 식 밀도있는 네트워킹을 위해 1회 최대 참여 인원 15명으로 제한하여 워크숍을 진행



역량강화 워크숍 & 아트투어



시간	장소	내용
1. 한성1918 – 네트워킹 (11:00-12:30)		
10:30 – 11:00	한성1918	참여자 등록
11:10 – 11:20		행사 소개
11:20 – 12:20		협업활동 네트워킹
12:20 – 12:30		질의응답, 협조요청사항 전달
12:30 – 13:30	영빈관	점심식사
2. 원도심 문화예술투어 (13:50-17:30)		
13:50 – 14:50	168계단 모노레일 & 명란브랜드연구소	초량동 산복도로사람들의 위대한 삶의 유산이자 명란로드로 재브 랜딩한 초량이바구길의 핵심거점
15:10 – 15:40	임시수도기념관	1926년 경남도지사관사로 지어 졌지만 피란수도시절 이승만대 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되 었던 장소
15:50 – 16:20	아미동비석문화마을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에 피란민 과 철거민들의 이주로 마을이 형성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피란수도생활유산
16:30 – 16:50	천마산로전망대	부산이라는 도시의 이면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부산사람도 잘 알지 못하는 최고의 부산다운 전망대
17:00 – 17:15	최민식갤러리	오로지 인간과 가난이라는 주제로 사진을 찍어오신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 1세대인故최민식선생님의 갤러리
17:30	부산역	

07

참여예술인 포트폴리오

김소영



이름(또는 예명)	김소영
이메일	tgiso0@naver.com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도자예술
역할	작가
하고싶은 작업이 있다면?	나와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는 작업

- 예술활동이력**
- 개인전**
 - 2021
 - MEDITATION Kim Soyoung 4nd Solo exhibition (523Kunst Doc, 부산) 외 3회
 - 단체전**
 - 2020
 - 부산 공예 청년 작가전(인사아트센터, 서울) 외 다수 아트페어
 - 아트페어**
 - 2021
 - 제 10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백스코, 부산)
 - 2020
 - 제 9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백스코, 부산)
 - 우수작가 선정**
 - 2020
 - 제 8회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우수작가 선정 (부산미술협회)

참여예술인
PORTFOLIO

강정환



이름(또는 예명) 강정환

이메일 pplfrv@gmail.com

웹사이트 Instagram : @cokey_artwork

팀/소속 신기루아트팩토리

기본장르 기획

세부장르 공연, 전시, 행사 기획 및 연출

역할 기획, 연출, 공간연출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공간

**하고싶은
작업이 있다면?** 새로운 감각과
감정을 줄 수 있는

예술활동이력

• 2022

- 허경미무용단 무무 <그리하여 능청이다> 무대감독

• 2021

- 부산문화재단 다원예술 전시<찰(察-살피나)나> 총괄
기획

- 부산문화재단 저작권교육 워크샵 <저작권이야기> 기획

- 공공미술프로젝트 <초량천예술정원> 최정화 작가 협
력작가

• 2020

- 부산문화재단 다원예술 전시 및 공연 <빛, 경계의 움
직임> 총괄기획

- CBS 포스트코로나, 세 개의 시선 (강신주X최재봉X
김충) 공간연출

• 2019

- 장편영화 <밤의 문이 열린다> 쇼케이스 연출

- <Zero Festival - City Salon> 무대미술

- 신나는 예술여행 부산 남항 바닷길축제 <Floating
Stage> 무대미술 & 무대감독

김도연



이름(또는 예명)	김도연
이메일	gdy0512@naver.com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미술
역할	작가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감정
하고싶은 작업이 있다면?	감정의 발현

예술활동이력	• 2022 - 천년의 품에 안기다 (갤러리 미지, 경주) - 호반문화재단 전국청년작가미술공모전 선정작가전 (아트스페이스 호화, 서울) - BAMA 부산국제호텔아트페어 (그랜드조선, 부산) - 미광화랑 상설전 (미광화랑, 부산) - 키아프 플러스 (SETEC, 부산) - 좋은친구들 (갤러리 휘, 부산) - green inflation 3인전 (제이무브먼트 갤러리, 부산) - refresh mind (갤러리 공간 봄, 대구) • 2021 - 도시생태도감 (구락생활문화센터, 부산) - 대구아트페어 (엑스코, 대구)
--------	---

참여예술인
PORTFOLIO

김선화



이름(또는 예명) 김선화

이메일 africa0500@hanmail.net

웹사이트 instagram : @seona0500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미술

역할 작가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안과 밖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선택하고 선택되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지로 담는 작업

예술활동이력

◇ 전시

• 2021

- BAMA AGE 2030 신진작가 특별전 (벡스코/부산)

• 2019

- 그리고,만들고,접고,붙이기 전 (갤러리 아티튜드/부산)

- 도시생물도감 <사라지는> 전 (울속도문화회관 갤러리
울속도/부산)

- 믹드셀라 전(금정문화회관/부산) 외 다수

◇ 아트워크

• 2022

- 보수동 팝업북 <보수동-새로운 고향에 정착한 사람들
의 땅>

• 2020

-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 <낙동강 문화관>

◇ 문화예술 프로그램

• 2022

- 감정예술출판 <내 안의 풍경> 드로잉 & 북아트

- 중구청 평생학습센터 <오일파스텔 컬러링>

• 2021

- 부산생활 문화센터 운영사업 한성1918 <빅페인팅
챌린지>

김 원



이름(또는 예명)	김 원
이메일	happyisu@kakao.com
기본장르	방송, 문학, 연예
세부장르	방송, 출판, 기획
역할	원고작성, 섭외, 편집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책 만들기
하고싶은 작업이 있다면?	- 지역 공동체에 맞는 영화보기 시리즈 기획 및 영상 제작 - 부산할매 이야기 발굴단 - SNS 사진작가와 콜라보한 사진책 출판
예술활동이력	- 마을잡지 <무조와곰솔> 편집인 & 영화 코너 필진 - KBS창원 <감시자들> TV작가 -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강사 - 학교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강사 - 경남MBC <공간다큐 그곳> TV작가 - KBS부산 라디오 <즐거운 저녁길> 작가

김혜윤



이름(또는 예명) 김혜윤

이메일 jiniee350@daum.net

팀/소속 부산연극협회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희곡

역할 작가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희곡 창작 / 삶과 이상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극작 동화
수필 시나리오

예술활동이력

• 2022

- 인생나눔교실 멘토

• 2021

- 극단 맥 공연 <여깨춤이 덩실덩실> 작가

-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 리더예술인

• 2020

- 극단 이야기협동조합 공연 <터널의 끝은 없다>작가

• 2019

- 극단 창 공연 <마음의 연주> 작가

- 인생나눔교실 멘토

• 2018

- 희곡집 발간 <아카섬이 남긴 것은> (5편 수록)

• 2016

- 통영희곡상 수상 <아카섬이 남긴 것은>

• 2015

- 과학창작대전 SF희곡 본선 <TOOLS> 작가

• 2014

- 사상강변축제 개막 공연 <고석할매 살아있네> 스토리
텔링 대상 수상

김정아



이름(또는 예명)	김정아
이메일	ecokja@naver.com
웹사이트	instagram : @kjaillust
팀/소속	고양이함수 /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입주작가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미술/출판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고양이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반려동물 혹은 동물과 관련된 커뮤니티를 통한 그림 및 글 작업을 통한 출판, 전시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예술활동이력	• 2022 - 단행본 '개와 고양이 그리고 나라는 인간' 출간 - The Hong Kong Illustration And Creative Show vol.4 한국관 선정작가 - 개인전 <친애하는 나의>, 523갤러리 - 개인전 지역작가 초대전 동심의 정원 <우리동네 고양이 사다린> - (주)오라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ADORA 앨범 일러스트레이션 • 2021 - 단체전 PARADE, 마린갤러리 - 3인전 본토박이의 정원, 이음갤러리 - UNDER39 부산청년아트페어 - 가톨릭재단 <제8회 가톨릭영화제> 일러스트레이션
---------------	--

김지우



이름(또는 예명) 김지우

이메일 nuangkki@naver.com

웹사이트 instagram : @nuangkki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미술

역할 작가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자연, 일상, 우주, 자아, 행복, 야광그림

**하고싶은
작업이 있다면?** 야광그림, 영상, 설치미술 작업이
하나로 이루어진 전시

예술활동이력

• 2022

- 나만의 전시 연합전/단체전, 진영역 철도박물관, 김해시
- 김해, 미술인 다모임 展/단체전,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문화재단

• 2021

- 낮과 밤 빛과 어둠의 공간에서 우주를 보다/개인전,
진영역 철도박물관, 김해시

• 2020

- 역사적인 취향일기 취향작가/김해문화도시센터/
김해시
- 경주관광 포스터 콘테스트 2등/경주관광/경주문화
관광/경주시
- 그림협찬 어쩌다 1일 (채널 : 유튜브 Visitbusan) /
부산관광공사/부산시

• 2018

- 그림협찬 김비서는 왜그럴까 (채널 : 방송 tvn)/tvn
드라마

김효은



이름(또는 예명)	김효은
이메일	hallofrauikim@gmail.com
웹사이트	www.hyoekim.com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시각예술
역할	창작자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일러스트레이션, 회화

예술활동이력	◉ 개인전 • 2022 - Frau Blume, 청사포갤러리, 부산 • 2021 - Books @ 할로 프라우킴, gallery H, 부산 - Album, kz art space gallery, 부산 • 2019 - 노는 게 제일 좋아, 갤러리 아티튜드, 부산 • 2018 - Gewinnen ist besser- 이기는 것이 좋아, 갤러리 도스 신관, 신관개관전, 서울 - 휴식, 아난티코브 이터널제니, 부산 ◉ 주요 단체전 프로젝트 • 2022 - 블루아워: Blue Hour, 갤러리 아트쇼, 부산 • 2021 - 작가의 방 - 콘텐츠그룹 재주상회, fyi, 서울 - pieceisland, 시공사 등 협업 • 2020 - Fantasia 3인전, gallery H, 부산 • 2019 - 빈공간x상자, 서울드로잉클럽, 빈 space, 청주 - love kids & love family, studio anabai, 서울
--------	--

참여예술인
PORTFOLIO

박소산



이름(또는 예명) 박소산

이메일 386dragon@naver.com

웹사이트 band.us/band/49154617

팀/소속 낙동국악예술원

기본장르 창작/실현

세부장르 춤, 민요

역할 기획, 연출, 창작, 실현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움직임, 소리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소리와 움직임을 통한 몸짓프로그램과
타 장르와의 협업

예술활동이력 • 2022

- (11. 21.) 북구문화도시예비사업 <만개의 공동체> 사업 '공동체 간 협업활동 지원사업-구포야 놀자- 인형제작 및 퍼레이드 참여
- (11. 20.) 북구문화도시예비사업<만개의 공동체> 사업 '영역별 멘토링&네트워크' 공연 및 멘토링 참여
- (11. 19.) 골목상권공동체육성지원사업 <구남사랑 야시장타> 공연행사기획 및 출연
- (11. 13.) 제2회 보령시민과 함께하는 국악제 (해원과 상생) 공연출연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
- (11. 08.) 북구문화도시예비사업<시민기획자학교 전 화예술영역>지원사업 '뽀뽀영감과 거니는 감동 이바구 마살' 인형제작과 퍼레이드 참여
- (11. 06.) 장유중앙광장 문화심기 시즌11 <발칙한 콘서트> 공연출연
- (11. 05.) 창원생명평화한마당 <막지막1.5C> 공연출연
- (11. 04.) 풍류인, 현묘한 길을 걷는 사람들3차 가을대회 <천제봉행과 학술대회, 그리고 답사> 공연출연

박홍석



이름(또는 예명)	박홍석
이메일	wolf35@hanmail.net
팀/소속	공연전문점알 대표
기본장르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세부장르	연극 연출, 극작
역할	연출 극작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연극 연출 극작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화제예방에 대한 교육극
예술활동이력	• 2022 - (09.~11.) 뮤지컬 <소몰리에> 제작 - (05.) 연극 <책방지기> 무대감독 - (05.) <우리도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작,연출 - (06.) <파란종이 빨간종이> 작, 연출

배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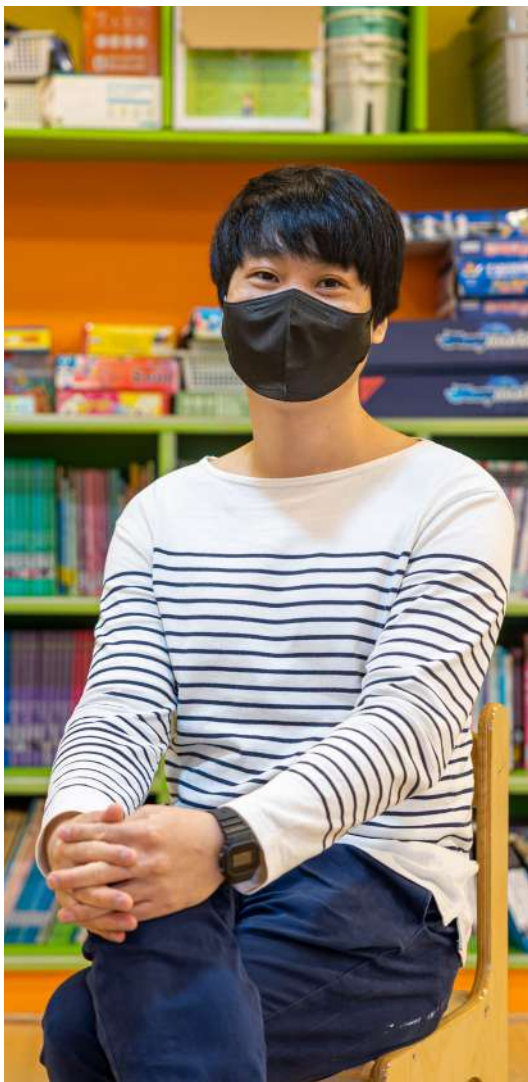
이름(또는 예명)	배은채
이메일	chae160@gmail.com
웹사이트	극단 instagram : @your_yeop.zip
팀/소속	극단 옆집우주
기본장르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및 기획
세부장르	연극
역할	배우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차별과 혐오 / 지역 / 여성 / 청년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 기후위기
예술활동이력	• 2022 - (11.) 낭독극 <달콤한 쪽으로> 배우 - (11.) 오디오드라마 <우리의 내일> 성우 - (11.) 광주여성영화제 개막공연<갈림길에 선 여자> 배우 - (-8.)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갈림길에 선 여자> 배우 - (-7.) 페미니즘연극제 <밤-좀비> 연출/작가/배우 • 2021 - (-12.) 연극 <밤이 되었습니다 좀비들은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밤-좀비)> 연출/작가/배우 - 다양성웹드라마 <멋대로 멋지다 멋지대로> 배우 - (-8.) 낭독공연 <미튼> 배우 - (-7.) 나는 연출이다 <언니 저 달나라로> 배우 • 2020 - 지역여성영화인 다큐멘터리 <캐치볼> 배우

서혜인



이름(또는 예명)	서혜인
이메일	jumsn84@naver.com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연극 연출, 극작
역할	무용연출 및 코칭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예술로 성장하고 행복하기 (성장, 행복)
하고싶은 작업이 있다면?	무용교육 교안 제작 및 강사 교육
예술활동이력	- (현) 장애인무용단 '해피바이러스' 무용안무가 - (현) 부산노병변복지관 자립팀 '플레시몹' 지도 - (현) 교리지역아동센터 놀이예술 교육 지도 • 2022 - 부산국제즉흥춤 축제 '사름무용단' 안무 및 공연 - 황금빛예술학교 '추억줄게 행복다오' 프로그램 기획 및 주강사 -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2020~2022년 참여 - 서혜인예술공간 "예술사랑방" 운영

백은석



이름(또는 예명) 백은석

이메일 perms1230@hanmail.net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문학

역할 작가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동화 쓰기

**하고싶은
작업이 있다면?** 다양한 예술 교육

예술활동이력

• 2022

-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다함께돌봄센터 하랑플러스

• 2021

-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 2020

-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 (사)아름다운사람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일상의 작가' 강사

- 동화책 '공룡별에 놀러 와' 출간(창비)

• 2019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일상의 작가' 강사

• 2018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일상의 작가' 강사

- 동화책 '구름송이 토끼야, 놀자!' 출간(창비)

심종후



이름(또는 예명)	심종후
이메일	hoo8943@gmail.com
웹사이트	instagram : @shimjonhu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공예(미술)
역할	디자이너, 제작자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굿즈디자인 가구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등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실내공간 디자인
예술활동이력	• 2022 - 심종후개인전 Virtual warehaus(부산, SCRAM) - ClusterCraft London (London, 1963Gallery) • 2021 - 오프코스 프로젝트 (전포, 오프코스) - Pieceof Spring (부산, 오브제후드 갤러리) - 심종후 개인전 : Colorof strings (광주, 515갤러리) - 호이오 프로젝트 (부산, 전포 호이오) • 2020 - 공예트렌드페어 브랜드관 참가(서울, 삼성코엑스) - 심종후 개인전 : 안위전 (전포, 스몰굿 커피) - 아트상품 지원사업 (부산, 부산문화재단) - 홀티아트센터 파견 예술인 (부산, 부산문화재단) - COORT가구디자인협업프로젝트 (서울, 판교코오롱) • 2019 - 서울디자인페스티벌영디자이너 (서울, 삼성코엑스) -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입선 (부산디자인진흥원) - 네이버그라폴리오 '크리에이터스그라운드' (서울, 삼성코엑스) • 2018 - ArtfairUnder35:새로운시작 (부산, 사상인디스테이션)

유혜린



이름(또는 예명) 유혜린

이메일 porori0930@gmail.com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문학

역할 작가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동화, 소설

**하고싶은
작업이 있다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예술 교육

예술활동이력

• 2022

-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영화의전당' 문학 프로그램 진행 및 큐레이션 작업

• 2021

-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 아동돌봄센터 '하랑플러스' 에서 문학/예술 교육 프로그램 진행

• 2020

- '공룡별에 놀러와!(창비)' 출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일상의 작가' '변신 이야기' 기획/강의

• 2019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일상의 작가' '마음을 움직이다' 보조 강사

- 농협중앙회 연계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

• 2018

- '구름송이 토끼야, 놀자!(창비)' 출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일상의 작가' '내 곁의 이야기' 기획/강의

안희정



이름(또는 예명)	안희정
이메일	ahj0328@naver.com
웹사이트	instagram : @daltugi2021
팀/소속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그림책, 회화
역할	창작 및 프로그램 진행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예술로 아카이빙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추억의 파편을 소재로 그림책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사라지는 생태계를 주제로 스토리를 만들고 그림책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예술활동이력	○ 기획활동(2022) - 북구청 새물갤러리 [오늘우리]전 총괄 기획 - 북구청 감동진갤러리 [동심의 정원]전 총괄 기획 - 구포니루축제 특별기획전 총괄 기획 - 울산 아음시장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 총괄 기획 - 생태해설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나만의 아우라찾기] 총괄기획 - 예술가 역량강화프로그램 [창작자의 예술전력] 총괄 기획 ○ 창작활동(2022) - 제17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포스터 원화작업 - [낙동강 감동포구의 생명] 생태그림책 출판 - [무채색의 정원] 환경그림책 출판 -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NFT단체전 2회 - 예술처방 프로젝트 [꼭꼭, 예술가]
---------------	--

엄지영



이름(또는 예명)	엄지영
이메일	tempestii@naver.com
웹사이트	www.adapter-gwangalli.com/index
팀/소속	극단 배.관.공
기본장르	창작 / 실연
세부장르	연극
역할	실연자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캐주얼오페라, 명작희곡 낭독공연
예술활동이력	- 연극 <니부모 얼굴이 보고싶다> - 배우 - 캐주얼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 배우 - 만지작(作) 가곡 - 원복원 <순례주택>, <불편한 편의점> - 배우 - 명작희곡 낭독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 배우 - 연극 <ANNE FRANK> - 배우 - 무용극 <해녀> - 배우 - 명작희곡 낭독 <느릅나무 밑의 욕망> - 배우 - 동아시아 교류 연극 <OTHELLO> - 배우 - 연극 <제10층> - 배우

이선옥



이름(또는 예명)	이선옥
이메일	tjsdhr11@hanmail.net
웹사이트	instagram : @tjsdhr11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미술
역할	작가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흩어진 정원, 편집된 풍경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영상
예술활동이력	• 2022 - 뉴미디어 AR · VR &아트전시 / 서동예술 창작공간 및 놀이마루 - 보수동 팝업북 만들기 참여/ 중구청, 비온후 • 2021 - 흩어진 정원 / 비온후책방, 부산 - 여덟 번째 방문자들 / 예술지공p, 부산 - 부산 레지던시 대전 / F1963석천홀, 부산 - 광(光)부(釜) 이야기 / 호랑가시나무, 광주 - Document 무계 / 웰컴레지던시, 김해 • 2020 - 임공동 기록 프로젝트- 내려서 그리는 임공동/ 사상구청, 비온후 전시 - 제9회 부산국제 회랑아트페어 BAMA 특별전 ART & XR 확장된 현실/ 벡스코1전시장, 부산 - 골목기억 당감 / 당감행복드림센터2F, 부산

참여예술인
PORTFOLIO

이정윤



이름(또는 예명) 이정윤

이메일 syaltie@gmail.com

웹사이트 www.boomvill.com

팀/소속 붐빌스튜디오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시각예술

역할 설치미술, 전시기획, 교육, 강의 콘텐츠 개발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code green/organic ornament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유리 설치 작업

예술활동이력 現, 붐빌스튜디오 대표/ 예술가

📍 개인전

• 2022

- <내가 만난 초록>, 금샘미술관, 부산

• 2021

- <CODE GREEN: The Songs for Leaving and Living>, 이상원미술관, 춘천

• 2018

- <여행하는 꼬끼리, 꿈꾸는 선인장> 오사키한국문화원, 일본 외 다수의 개인전 초대

📍 단체전

• 2022

- <말랑말랑>, 헬로우유지엄, 서울

- <A-Maze-ing>, 우양미술관, 경주

• 2021

- <Splash>, 신세계센텀시티점 갤러리, 부산

• 2019

- <다다 팩토리>,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개관전, 서울 외 200여회의 국내외 기획전 참여

이정은



이름(또는 예명)	이정은
이메일	joohi9955@naver.com
기본장르	미술
세부장르	공예, 디자인
역할	디자이너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공예, 디자이너
하고싶은 작업이 있다면?	디자이너
예술활동이력	• 2022 - (-5.) 아난티 이터널저니, DDP 디자인 스토어 위탁 판매 - 1/2월호 노블레스맨 매거진 PRINT MEET PRINT 참여 • 2021 - 부산디자인워크 SDF 영 앤버서더 기획전 참여작가 - 디지털 크래프트 이정은 개인전 (울산 갤러리 P1) - 서울리빙디자인페어 Living with art and Design & 서울옥션 경매 참여 • 2020 -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영 디자이너 프로모션 참여 작가 - 한국디자인연감 270개의 프로젝트 선정 (KDA 후보작) - 공예로 헤엄치는 마을 전시 참여작가 • 2019 - 신공예전 참여작가 (한국도자재단) - 이정은 개인전 degital craft (레이어드갤러리)

장재희



이름(또는 예명) 장재희

이메일 jaeheezang@gmail.com

기본장르 실연

세부장르 전통연희

역할 기획 및 연희

**하고싶은
작업이 있다면?** 다른 예술장르와의
협업 및 창작

예술활동이력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이수자
연희집단 가락 대표

• 2022

- 마당극 '물꽃 피는 바다' 음악감독
- 가락오광대 기획공연 '개똥상놈 가락꾼' 기획 및 연희

• 2021

- 극단 일더 '회나뭇골 사람들' 음악 및 출연
- 예심국악원 마당극 '금줄을 걸어라' 음악감독
- 배김새 무용단 '길' 음악
- 부산문화재단 창작활동영상제작 '가락오광대 기록 사업' 기획 및 출연

• 2020

- 부산문화재단 아트체인지업 '부포상모' 기획 및 출연

전미희



이름(또는 예명)	전미희
이메일	jeonmiart@gmail.com
웹사이트	instagram : @jeonmi_art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미술
역할	디자인&기획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작업을 활용한 제품 패키지

예술활동이력	📍 개인전 • 2022 - (12.11~18) "My hometown is the moon" - 모하창작 스튜디오 - (09.05~30) "푸른산책" -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 (08.10~18) "CUTOUT OBJET" - 공간서울 📍 단체전 • 2021 - (10.25~10.31) "퍼레이드" - 마린갤러리 - (10.01~10.31) "어느새 지금" - 화명역 - (09.07~09.13) "음악을 읽어주는 그림전" - 스페이스웜 - (09.12~09.18) "Across the youniverse" - 만세갤러리 - (06.23~07.31) "My favorite things" - 카페아가미, 화명역 📍 아트페어 • 2022 - (09.30~10.06) "에코아트페어" -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 (03.04~03.31) "신년아트축제" - 롯데백화점 동래점 1F - (02.18~03.20) "호호아트페스티벌" - 골라보하우스 도산 • 2021 - (11.19 ~28) "Under39" 부산청년아트페어 -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 B1
--------	---

정소이



이름(또는 예명) 정소이

이메일 soi4585@naver.com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미술

역할 작가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모양 가위로 자른 흙의 단면, 중첩되어 보이는 선과 그림자를 연결해 형태미를 표현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리빙 오브제를 만듭니다.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매력있는 작업

예술활동이력

- **2022**
 - 청년예술작품구독, DRB동일, 부산
 - 국제교류전, 연제문화원, 부산
- **2021**
 - 자르고 붙이다 부산교육대학교 갤러리, 부산
 - under39 / 신세계센텀시티 중앙광장, 부산
- **2020**
 - '예술 속에서 살아가기' 디오티미술관, 부산
- **2019**
 - 을숙도 부산사랑 젊은작가프로젝트2019
 - 을숙도문화회관, 부산

정승화



이름(또는 예명) 정승화

이메일 okdnwjd@naver.com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조각

역할 작가

예술활동이력

• 2022

- Persona:페르소나 (써니갤러리/부산)

• 2021

- Let's Always be Happy (부산시민회관/부산)

• 2020

- Color stories (인사이트센터/서울)

- 좀비 것들 (523갤러리/부산)

- 진부한 것을 뒤엎을 바다 부산편 (춘자아트갤러리/부산)

- Yongdu Island (아트스페이스 용두/부산)

• 2019

- 진부한 것을 뒤엎을 바다 제주편 (돌담갤러리/제주)

- 그림을 만들고 조각을 그리다 (523갤러리/부산)

정혜원



이름(또는 예명) 정혜원

이메일 gpdnjs9597@naver.com

팀/소속 PROJECT 광어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현대무용

역할 안무자,무용수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문화예술교육/창작 공연

**하고싶은
작업이 있다면?** 문화예술교육/창작 공연

예술활동이력

• 2022

- 영호남 민족예술대동제 청년문화제:‘낯선미래,노스텔지아’조연출
- 극단 해풍 창작공연 ‘노을의 무도회’ 안무 및 출연
- 국악그룹 뜨락 기획공연 ‘그날의 이야기 붉은총절’ 안무 및 출연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춤추는 영화의 전당-바디콘서트’ 보조강사
- 유아문화예술교육 ‘영화의전당 별빛 놀이터’ 보조강사

• 2021

- 청년연출가 다년도 지원 선정작 ‘소나기-잠깐내린비’ 안무 및 출연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춤추는 영화의전당-바디콘서트’ 보조강사
- 유아문화예술교육 ‘영화의전당 별빛 놀이터’ 보조강사

정호윤



이름(또는 예명)	정호윤
이메일	hoyork@naver.com
웹사이트	youtube : @hoyork
팀/소속	레프로덕션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미디어아트/영화
역할	미디어교육 및 예술창작 교육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대안학교, 미디어 콘텐츠 제작 교육
하고싶은 작업이 있다면?	학생들과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싶음
예술활동이력	• 2022 - (11.) 수림미술상 후보작 유장우 작가 너의 실패는 나의 미래 촬영감독 - (11.) 금천문화재단 금천아티스트랩 간담회 촬영감독 - (04.) EBS 서울대레슨노트 국악편 감독 • 2021 - 다큐멘터리 한 대수의 한인생 각본/감독 • 2020 - (03.) 독립영화 차이 각본/감독 • 2019 - (03.) 독립영화 실격 각본/감독 • 2013-2018 - 서울문화재단 미트프로젝트 선정 작가

주혜자



이름(또는 예명)	주혜자
이메일	whatsup23@hanmail.net
팀/소속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기본장르	창작 및 기획, 실연
세부장르	연극
역할	연출, 작가, 기획자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지역공연예술 #거리예술 #축제 #공공연극 #마을공동체
하고싶은 작업이 있다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펼치는 거리예술공연
예술활동이력	• 2022 - 연출 <제10층>, <안네프랑크> • 2021 - 연출 <밀다윈> • 2020 - 연출 <천일야화>, <나를 만나듀오> • 2019 - 연출 <안네프랑크>, 낭독극 <뽕/안드로마케> • 2018 - 기획 '부산소설나들이' • 2017 - <마이 디어 헬렌>, <에이프릴의 겨울>

차성욱



이름(또는 예명)	차성욱(차야다)
이메일	harnea@naver.com
웹사이트	instagram : @chayada_picturebook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그림책/기획/교육/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
역할	아티스트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그림책/기획/교육/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부산’ 캐릭터 작업 / ‘부산’ 콘텐츠 개발
예술활동이력	• 2022 - 부산평화영화제 미술감독(굿모닝예술인) • 2018~2022 - 남부문화예술네트워크 예술강사 • 2020~2021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심표’ 예술강사 • 2019 - 서울공중문화축전 아트북 미술감독 • 2017~2019 -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미술감독 - 『공 종 주위 주세요』(북극곰)_글/그림 - 『아빠 쉬는 날』(북극곰)_글/그림 - 『나는 팝콘이에요』(열린어린이)_그림 - 『만우절 대작전』(북극곰)_그림 - 『농정맞은 고양이와 동물농장 1,2』(문학과지성사)_그림

최용혁



이름(또는 예명)	최용혁
이메일	choidir@naver.com
웹사이트	instagram : @choidir
팀/소속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연극 및 뮤지컬
역할	작/연출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연극 <1945> / 부산연극제 프로그래머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시민연극 / 창작극 / 창작뮤지컬
예술활동이력	• 2022 - 부산시립극단 <소년B가 사는 집> 연출 - 뮤지컬 <해답> 작/연출 - 연극 <우리들의 친구, 인간> 연출 (작강연극제 대상, 연출상, 무대예술상 수상) - 연극 <가을 반딧불이> 연출 (부산연극제 우수작품상, 연출상 수상)

하주은



이름(또는 예명)	하주은
이메일	quube@naver.com
웹사이트	instagram : @gilgadajun kokobyul0.wixsite.com/barkha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회화, 미디어
역할	작가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인종, 성, 언어, 환경(자연), 종(인간과 비인간) - 아나키즘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나이와 언어, 인종을 관통하는 실험 프로젝트를 담은 영상 작업, 혼자서 만들 수 있는 단순 회화작업이 아니라, 실행하려면 참여자들을 모집해야 하고 재정적, 환경적 한계가 있어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음. 어떤 기관이나 사업에 연계해서 꼭 하고 싶은 프로젝트.

예술활동이력

개인전

- 2022 - 유해동물, 소민아트센터, 부산
- 2020 - 인종, 성, 언어, 로그램프, 창원

단체전

- 2022 - 서상동 프로젝트 5years ago, 미술중심공간보물섬, 경산
- 2021 - 외출, 안녕예술가, 부산 (2019 해외거주)

기타활동

- 2022
 - 부산국제아트페어 프로젝트 감독, 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
 - P씨의 무성영화 제작기 프로젝트 참여, 미술중심공간보물섬 (꿈다락 사업)
 - 청년예술작품구독, 영화의전당 (부산문화재단 사업 선정)
 - 굿모닝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모퉁이극장 (부산문화재단)
- 2021
 - 문화예술연수단원 사업 참여, 오픈스페이스배 (아르코)
- 2016-2019
 - 대구경북중심 전시기획그룹 센데이페이퍼 그룹원 활동

홍석진



이름(또는 예명) 홍석진

이메일 jinhongfilms@naver.com

팀/소속 진홍 스튜디오

기본장르 창작

세부장르 다원

역할 북트레일러 제작, 호밀밭 북 인터뷰 영상 촬영
제작, 감각적 책 읽기 기획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북트레일러 및 인터뷰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영화 작업

예술활동이력

• 2022

- <부식풍경> |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 해운대문화회관 제2 전시실 | 연출 영상
- <초량비트> | 댄스필름 | 서울 국제 대안영화 페스티벌 | 연출/영상
- <초량비트> | 댄스필름 | 서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 연출/영상

• 2021

- <초량비트> | 댄스필름 | 서울 국제 무용영화제, 베스트 10 수상 | 연출/영상
- <부식공간 기 비디오아트 | 광주아시아문전당 미디어 월 컨텐츠 4*4WALLS 공모 선정 | 연출/영상
- <갈매기 스텝> | 댄스 필름 | 프로젝트051 | 부산문화재단 | 연출/영상
- <드림퍼레이드> | 교육 | 문화예술 직업체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영화의 전당

• 2020

- <메모리 메들리> | 커뮤니티 아트/ 비디오 아트 | 한성 1918 | 연출/영상
- <혼종, 메이드 인 부산> | 비디오 아트 | 통의 보안 여관 단채전
- <피난 2020> | 다큐멘터리 | KNN 방송국 | 협업 아티스트

우혜린



이름(또는 예명)	우혜린
이메일	lina_9@naver.com
팀/소속	프리랜서
기본장르	기술지원 및 기획
세부장르	무대조명
역할	무대조명감독, 무대조명진행
하고싶은 작업이 있다면?	무대조명감독

- 예술활동이력**
- 2022
 - (11/22~25) 부산시립무용단 <MOTI/어디로부터> : 조명 오퍼레이터
 - (11/15)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일파가야금합주단> : 조명감독
 - (08/21~27) 부산시립무용단 <수퍼타이거> : 사이드팔로우 오퍼레이터
 - (07/19~23) 부산시립무용단 <이정운의 댄스살롱> : 조명 오퍼레이터
 - (07/14) 박팍처스테이지 <낭독극 리멤버> : 조명감독
 - (05/16~21) 부산시립무용단 <부산, 40계단> : 조명조감독
 - 2021
 - (12/10~11) 부산시립무용단 <소생> : 조명크루
 - (11/17~21) 박팍처스테이지 <오랜가약> : 조명 오퍼레이터
 - (03/16~20) 부산시립무용단 <홀로홀출> : 조명 오퍼레이터
 - (08/30~09/05) 부산시립무용단 <MOTI/어디로부터> : 사이드팔로우 오퍼레이터

양유진



이름(또는 예명)	양유진
이메일	nmpyuuj@naver.com
기본장르	기술지원
세부장르	무대 기술
역할	무대감독
현재 작업 및 주제 키워드	무대, 무대감독, 안전, 극장, 공연
하고싶은 작업이 있다면?	프리랜서 무대감독
예술활동이력	- 별이 빛나는 밤에 무용 공연 - 슈퍼타이거 무용 공연 - 미스터리 음악회 무용 공연

허 훈



이름(또는 예명)	허 훈
이메일	gjgns1018@naver.com
기본장르	실연
세부장르	무대진행
역할	무대감독
예술활동이력	• 2022 -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창작기술지원 참여예술인 - 부산시립합창단 2022 Summer Fantasy<시간> - 소프라노 김소율 독창회 - 김화정 독창회 등 다수 공연 진행 • 2021 - (재)부산문화회관 2021년 공연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

08

예술인복지란?

예술인복지란?

음악

예술인 복지는
“전망대”이다

지속

별집

우리

군고구마

예술 활동 장려

예술인 복지는
“**즐거움**”이다

정신
건강

가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세탁

음

예술인 복지는
“지속 가능한”
이다

원동력

희망

어려움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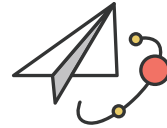
09

사업통계 및 만족도조사

기대효과



예술적 개입을 통한
조직 혁신 경험



예술기반 창조 경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



조직 내부 인적 지원
역량강화 도출



예술 활동 결과물을 통한
기업의 가치 상승 및
조직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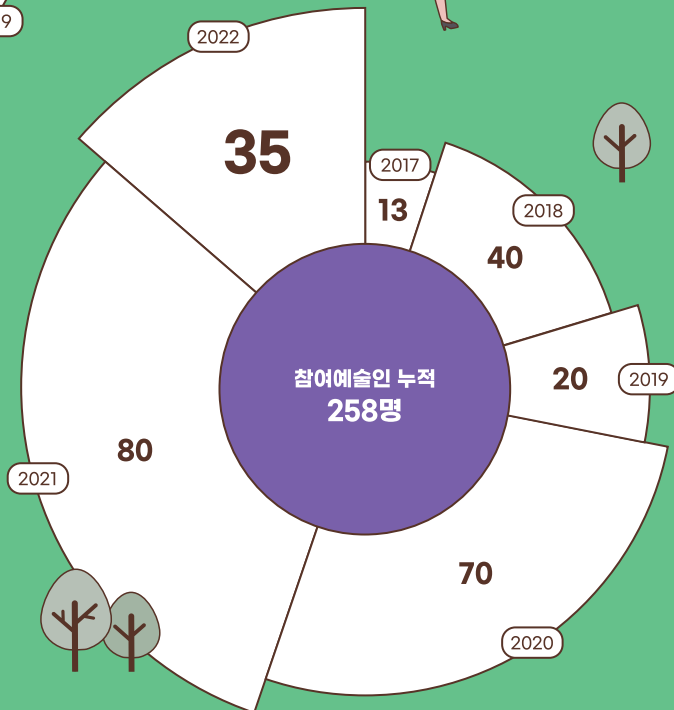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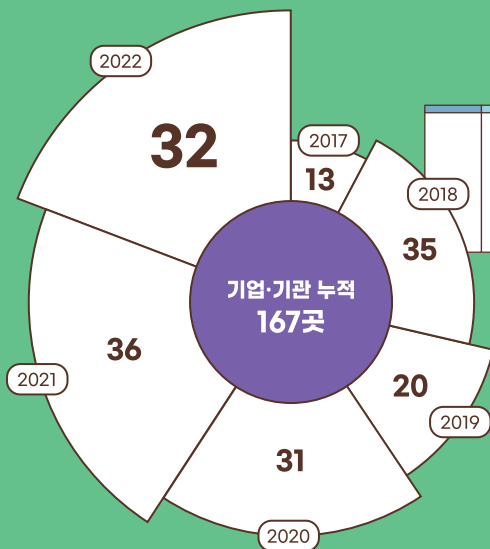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 마련

사업 통계 및 만족도조사

참여기업 및 기관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진행되었으며
167개 기업·기관과 258명의 예술인이 참여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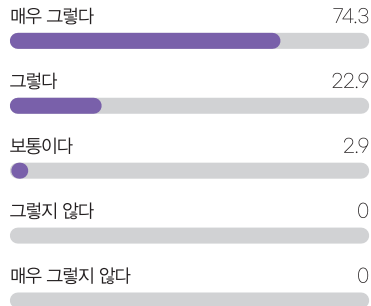
만족도조사

- 참여예술인 응답인원 35명 기준
- 참여기업/기관 응답인원 19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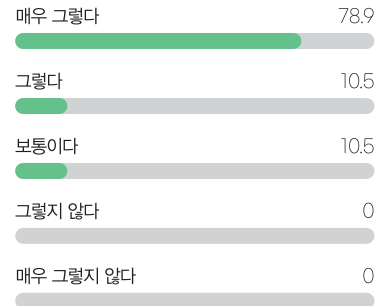
* 단위 %

Q1.

-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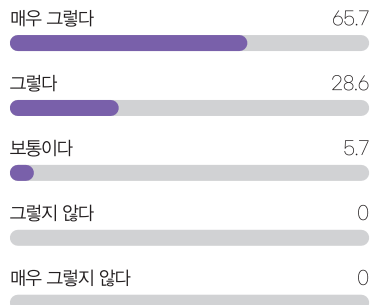


-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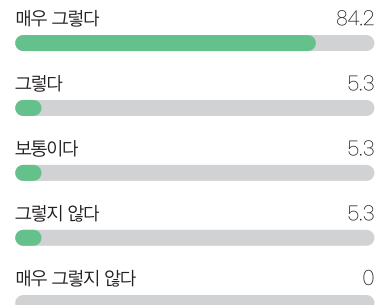


Q2.

-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이 **경제 및 커리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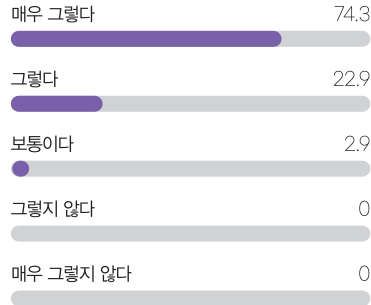


- 참여 예술인과의 협업활동이 **기업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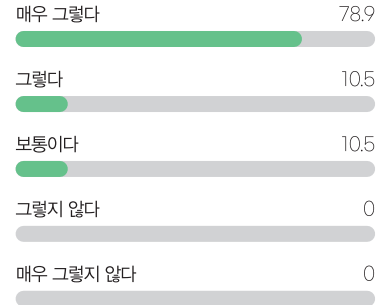


Q3.

- 향후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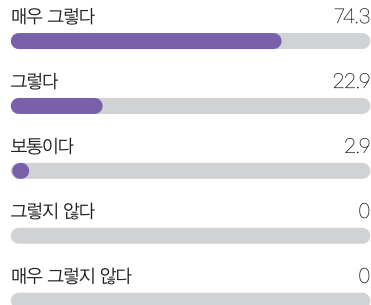


- 향후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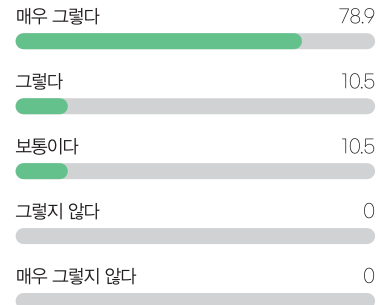


Q4.

-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향후 **본인의 예술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 본 사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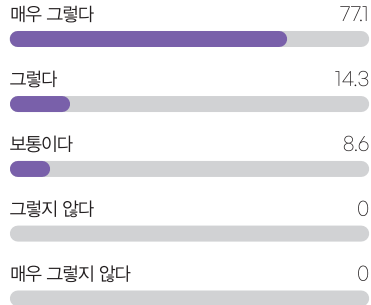
만족도조사

- 참여예술인 응답인원 35명 기준
- 참여기업/기관 응답인원 19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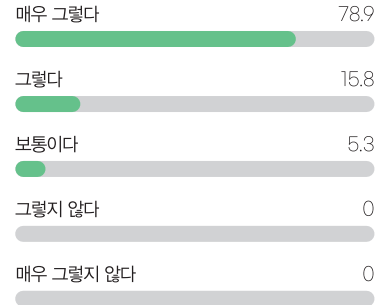
* 단위 %

Q5.

- 파견기업/기관에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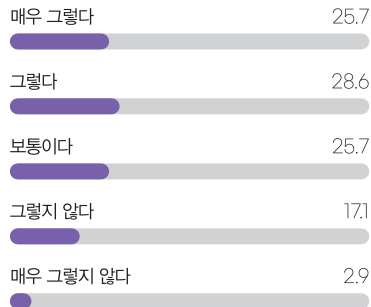


- 참여기업/기관의 **니즈가** **협업활동 결과물에**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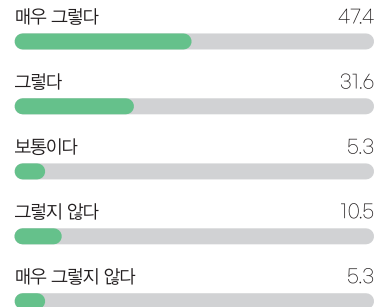


Q6.

- 파견기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파견기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의견과 퍼실리테이터 SAY



참여예술인

- ▶ 필요한 부분이나 개선되길 원했던 사항들을 정말 잘 반영해주셨고 잘 이끌어 나가주셨습니다.
- ▶ 여러모로 작년보다 편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업기간동안 한결같은 자세로 임해준 부산문화재단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으나 기업과 예술가 모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았으면 합니다. 단순한 업무나 일반적인 기술을 요하는 프로젝트는 지양하고 기업과 예술인에게 새로운 기회와 시야를 제공하는 사업이기를 바랍니다.
- ▶ 사업으로 인한 안정적인 수입으로 기간 동안 작품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년을 참여했는데 내년도에도 저와 예술의 목적이 부합하는 기업이 있다면 참여 하고 싶습니다.
- ▶ 혼자 활동 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것이 효율일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아쉽고 다른 장르와 협업을 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파견기간이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대1 매칭도 좋지만 다른 분야의 작가와의 협업 작업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해동안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기업/기관 담당자

- ▶ 다양한 분야 여러 명의 예술인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다수의 예술인 파견 (혹은 팀 파견) 등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 ▶ 예술인 파견 덕분에 기관에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고, 향후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퍼실리테이터 SAY



안녕하세요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퍼실리테이터 김태연입니다.
35명의 참여예술인분들과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부산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예술인을 직접 기업, 기관에 파견하여 예술적 지원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 활동보고서과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며 생각지 못한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밝히는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 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번의 모니터링과 11월 진행한 3번의 역량강화워크숍에서는 협업으로 탄생한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통해 많은 예술인, 기업기관 담당자 선생님과 함께 호흡하는 기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저도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부산문화재단 2022-021호

발행일

2022년 12월

기획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발행인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번지(감만동)

T. 051-745-7239

F. 051-745-7708

E. bscfcenter@bscf.or.kr

기획 및 편집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김두진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팀장 송수경, 팀원 김희선, 김태연

사진

이미지노마드스튜디오

디자인 및 제작

MEMPHIS 051-248-7262

